

## 피부병의 형상의학적 치료

석민희 · 황원덕<sup>1</sup> · 정행규<sup>2</sup>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동의대학교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 신계내과학 교실, 2: 홍제한의원

## Treatment of Skin Diseases in Hyungsang Medicine

Min Hee Suk, Won Duek Hwang<sup>1</sup>, Haeng Gyu Jung<sup>2</sup>, Yong Tae Lee\*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2: Hongje Oriental Clinic*

By treating skin diseases with Hyungsang medicine and reviewing the clinical cases of them through classifying skin diseases into general care and into Hyungsang medical care, the writer ca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ings. The skin is a house of Kyungnak, and it's a place which Ki comes in and out, which human body controls conditions of his physiological function and which doctors can make a diagnosis from seeing it. The skin is subject to lung and large intestine in the point of organ, but in the point of movement, to spleen and stomach. Skin diseases come from unbalance of Ki and Hyul, mostly from fever in blood and also from Dam, Wind, Dampness and Dryness because of including fire. Generally skin diseases are treated according to classifying into distinctive symptoms, region, cause or time being occurred, and concomitant symptoms. After being divided into man and woman, age and youth, fatness and leanness, Jung Ki Shin Hyul type, visceral figures, Yukkyung shapes on Hyungsang medicine method, the remedy of skin diseases which is combined common meditation with Hyungsang medical method is efficacious. In distinguishing into man and woman, age and youth, man gets sick mainly by drinking liquor and exhausting Jung, woman is taken ill generally by indigestion and Damwha, especially by drinking liquor. Young child gets ill mostly from inherent weakness, but in many cases he is occurred by disturbed digestion, so he must be taken care of ingesting food. The aged becomes ill from weakening, so he must be treated according to reasons of diseases. To fatness and leanness, skin diseases are showed symptoms by weakened Yang, insufficient Yin or excess fever on the theory of upper and lower parts, by unbalance of Ki and Hyul on the theory of left and right, by Dryness and Dampness on the theory of front and rear and by insufficiency of vitality and combined fever on the theory of inside and outside. Therefore doctors must cure the symptoms according to the theory of upper and lower, left and right, front and rear and inside and outside. In type of Jung Ki Shin Hyul, the balances between Jung-Hyul and Shin-Ki are important points. Concretely Jung type comes to easily shortage of Jung or gathering abnormally Dampness and Dam, Ki type is easy to make a mass with Ki or to be deficient of Ki, Shin type comes to press seven emotions together or to be insufficient of Yin and fever inside, and Hyul type is inclined to be deficient of Hyul and to become feverish or to be deficient of Ki. Therefore on the ground of the above reasons skin diseases come into existence. Inclusively in Jung-Hyul type, Ki must be moved on the base of full Jung-Hyul, so Wukmijwhangtang or Samultang is prescribed basically. In Shin-Ki type, Jung-Hyul is saved on the base of moving Ki, so Hyangsosan or Yijintang is the proper prescription. Considering the visceral figures, doctors judge for diagnosis and remedy by putting together the elements, that is, great and small sizes of a set of features (eye, ear, mouth, nose), color and temper. The yukkyung typ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ny or few of Ki-Hyul, and then skin diseases appear by being inclined toward one side between Ki and hyul, or among the six atmospheric elements(wind, cold, heat, dampness, dryness, and fire). Especially because Yangmyung type is full of much Ki and Hyul, and also has much fever in stomach, he gets skin symptoms frequently. So his prescription is based on taking off fever in stomach, and also he must be careful about regimen certainly.

Key words : Skin diseases, Hyungsang medicine, Jung Ki Shin Hyul, Damwha(痰火), yukkyung shapes

## 서론

인간은 소우주이고 유기체이며 精血을 포괄하는 津液의 集體이다<sup>1)</sup>. 피부에 속하는 玄府<sup>2)</sup>는 사람의 臟腑, 皮毛, 肌肉, 筋膜, 骨髓, 爪牙에 다 있으면서, 氣의 出入 升降의 道路와 門戶가 된다. 따라서 그 기능은 開闔作用으로 氣液, 血脈, 營衛, 精神을 운행하여<sup>3)</sup> 체내환경을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피부는 단순한 보호막과 체온조절 개념뿐만 아니라 氣의 出入處인 동시에 調節處이며 체내 이상의 反應處로 인식하고 있다. 또 皮膚는 組織으로는 肺大腸이 주관하고 運行에서는 脾胃가 주관한다. 피부병의 병리는 주로 血熱<sup>4)</sup>로 본다. 그 병인은 外邪의 侵襲으로도 오지만 현대의 난치성 피부병은 주로 내부 요인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氣血의 不調이나 장부에 熱이 많거나 또는 부적절한 음식섭취, 과도한 노동, 지나친 생활, 과도한 질정 등으로 熱이 발생하면 津液, 精血을 손상하여 血熱이 조성되어 피부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東醫寶鑑』에서 피부병은 「皮門」<sup>5)</sup>의 痒痛, 癩疹, 癩疹, 丹毒, 麻木, 索澤證, 癩風白駮, 黑痣禿子, 「毛髮門」<sup>6)</sup>의 毛髮黃落, 鬚髮榮枯, 「筋門」의 手爪占病, 「諸瘡門」<sup>7)</sup>의 天疱瘡, 癩癰, 結核, 癭瘤, 疔瘡, 疥癬, 翻花瘡, 癩頭瘡, 陰蝕瘡, 腎臟風瘡, 腫瘡, 凍瘡, 湯火瘡, 漆瘡, 「痰飲門」의 痰塊, 「頭門」<sup>8)</sup>의 頭生白屑, 「面門」<sup>9)</sup>의 面熱, 面上雜病, 「眼門」의 臉生風粟, 「肉門」의 贅肉, 疣目, 「手門」의 代指, 手足皸裂, 「足門」의 甲疽瘡, 肉刺, 「癰疽門」의 游注骨疽, 「燥門」<sup>10)</sup>의 燥證, 「火門」<sup>11)</sup>의 臟腑積熱 등의 범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피부병은 麻木, 搔痒, 疼痛, 變色, 乾燥, 濕潤, 瘡瘍, 結核 등과 毛髮<sup>12)</sup>의 榮枯, 黃落, 손발톱의 이상까지도 포함된다.

피부병의 일반적인 치료는 증상특징, 발생부위, 발생원인, 발생시기, 수반증상으로 분류하여 시행한다.<sup>13)</sup> 그러나 그 치료효과는 만족할만하지 못하다. 形象醫學의 특징은 사람마다 形色과 장부의 차이에 따라 병리를 다르게 보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치료법에 개체 특성의 발현상인 형상을 참고하여 피부병의 치료와 양생을 겸하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필자는 피부병 치료의 연구방법을 편의상 일반적인 치료와 形象醫學의 분류인 男女老少, 肥瘦人, 精氣神血科, 臟腑形象, 六經形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임상실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분류를 결합하여 피부병치료에 접근한 바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 본론

### 1. 韓醫學에서 본 皮膚

1) 皮膚는 經絡의 집으로 氣의 出入處·調節處·診斷處이다  
인체는 대우주인 자연에 적응하는 소우주로서,<sup>14)</sup> 물질적인 구성은 精, 血, 津液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인체는 精血을 포

괄하는 津液의 集體이다.<sup>15)</sup> 속으로는 五臟六腑가 있는데 五臟은 精氣神血과 魂魄을 간직하고, 六腑는 水穀을 소화하고 津液을 운행한다.<sup>16)</sup> 겉으로는 皮膚에 經絡이 분포하여 六氣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인체는 五臟이 주재자가 되어 여건에 따라 代謝作用<sup>17)</sup>을 수행하여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有機體이다.<sup>18)</sup> 여기에서 皮膚는 玄府로서 모든 인체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氣의 出入處이며 氣液, 血脈, 營衛, 精神 운행의 중요한 조절기관이 된다.<sup>19)</sup> 또한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經絡이 臟腑와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피부병의 발생부위를 보면 어느 장부의 이상으로 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皮膚는 내부이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診斷處이다<sup>20)</sup>

### 2) 피부는 폐와 대장이 주관하지만 오장육부가 모두 관여한다

인체는 안으로 오장과 육부가 있으며 겉으로는 피부가 있는데 경락이 상호 연결되어 內外의 氣血 소통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피부는 인체 모든 장부가 모두 관여된다. 특히 피부는 肺가 주관하지만<sup>21)</sup> 大腸과 표리관계를 형성하여 피부호흡을 하고 있다<sup>22)</sup>. 또한 胃와 大腸은 寒熱로 수곡을 소화시키며<sup>23)</sup> 겉으로는

- 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270 (廻津法)-사람의 몸에서 진액이 기본인데 이것이 피부에서는 땀이 되고 근육에서는 피가 되며 콩팥에서는 정이 되고 입에서는 침이 되고 비에 잠복하여서는 담이 되고 눈에서는 눈물이 된다.
- 2) 上揭書, p. 727 ○皮膚亦曰腠理 津液滲泄之所曰腠 文理縫會之中曰理 ○腠理亦曰玄府 玄府者汗孔也 皮膚는 汗구멍과 담구멍이 아닌 부분까지 포괄하는데, 그 중에 담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현부이다.
- 3) 上揭書, p. 555
- 4) 上揭書, p. 727 (風寒之邪先入皮毛) ○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則 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虞於腸胃 邪之始入於皮也 泝起毫毛開腠理 其入於絡也 則絡脈盛色變 其入客於經也 則感虛乃陷下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 骨消·肉燋·腦破·毛直而敗.
- 5) 上揭書, p. 727
- 6) 上揭書, p. 793
- 7) 上揭書, p. 1464
- 8) 上揭書, p. 487
- 9) 上揭書, p. 511
- 10)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096
- 11) 上揭書, p. 1107
- 12) 上揭書, p. 727 內經曰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肺主皮毛
- 13) 동의보감의 피부과 장암문을 보면 주증상, 발생부위, 발생원인으로 나누어서 치료하되 내용중간에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 14) 上揭書, p. 122 [四氣調神]에서 자연의 변화가 우주상의 만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주체로 인식하여 사계절 음양변화는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 15) 上揭書, p. 209 [血爲營]혈이 많아지면 뜸내지고 혈이 부족해지면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였으므로 인체는 혈을 담고 있는 그릇 즉 혈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 16) 上揭書, p. 298
- 17) 한의학에서 대사작용은 외부와는 사기조신이라고 하고 내부로는 신진대사라 한다.
- 18) 인체는 유기체이므로 상호 관계이론인 표본론 표리론 공변론 등이 있다.
- 19)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555 玄府者 無物 不有人之藏府 皮毛 肌肉 筋膜 骨髓 爪牙 盡皆有之, 乃氣出入升降之道路 門戶也, 有所閉塞 不能爲用者 悉有熱氣佛鬱, 玄府閉密 而致氣液血脈 榮衛 精神不能升降出入 故也. 各隨鬱結微甚而爲病之輕重.
- 20) 上揭書, p. 727 皮膚者 脈之部也 十二經皆有部分 不與而生大病也 不與者 不與他脈同色也
- 21) 上揭書, p. 727 內經曰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肺主皮毛
- 22) 芝山先生 臨末學特講 II, pp. 112, 113. 肛門은 肝腎에 붙어서 皮膚呼吸을 하고 十二經脈을 돌려주는 役割을 하며 코는 心肺에 붙어서 呼吸을 하여 心肺를 길러준다
- 23) 上揭書, p. 1156 [內傷將理法]- 위는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며 대장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찬 것을 싫어한다. 이 두가지를 조화하려면 음식과 의복을 차고 더운 것에 알맞게 입거나 먹어야 한다. 차고 더운 것이 적당하면 기가 고르게 되어 병이 나지 않는다.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4/03/26 · 수정 : 2004/04/27 · 채택 : 2004/05/24

皮毛과 肌肉으로 寒熱을 흡수 배설하여 조절<sup>24)</sup>하므로 脾와 胃도 피부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인체의 내부변화에 항상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음식물이다. 脾胃는 좁은 의미로는 소화기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인체 전체이므로 피부까지 확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 소화기의 이상은 피부로 전달되어 반응한다. 그러므로 피부를 열고 닫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피부병을 치료하고, 내부의 소화기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부병은 주로 脾胃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부는 조직적으로는 肺大腸이 주관하고 운행적으로는 脾胃가 주관한다.

## 2. 皮膚病의 원인과 예방

### 1) 皮膚病의 원인

#### (1) 皮膚病은 氣血의 不調和로 발생한다

氣를 여건에 맞게 잘 운행하면 몸이 건강하지만, 잘못 운행하면 병이 온다<sup>25)26)</sup>. 氣는 血과 상호 體用的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영향을 준다<sup>27)28)</sup>. 피부병에 있어서도 氣가 부족하면 血의 생성이 안 되어서 피부를 영양하지 못하고, 氣循環이 지나치면 津液을 소모시키므로 피부에 영향을 준다. 또 氣가 울체되면 鬱熱로 피부병을 유발한다.

#### (2) 皮膚病은 氣虛로도 오지만 주로 血熱로 발생한다

氣는 陽에 속하며 부드러운 것<sup>29)</sup>으로 血의 순환을 좋게 한다. 그러나 氣가 부족하면 火가 부족하여 血의 생성과 운행이 안 되어 피부를 영양하지 못하고<sup>30)</sup>, 氣가 실하면 火가 많으므로<sup>31)</sup> 火가 만물을 태워서<sup>32)</sup> 精血을 손상시키므로 피부병을 유발한다<sup>33)</sup>.

(3) 痰·風·濕·燥도 火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火는 痰의 근본이 되고 痰은 火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痰이 있다면 속에 火가 있으므로 痰火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한다.<sup>35)</sup> 風은 熱에서 생기므로 熱은 본이 되고 風은 標가

되므로 風은 火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風火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한다.<sup>36)</sup> 燥도 火를 내포하고<sup>37)</sup> 있으므로 피부병이 온다. 그 병리를 보면 火熱이 지나치면 金이 쇠약해지면서 風이 생기는데 風이 濕을 말리고 津液을 소모시켜 燥가 된다. 濕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火熱이 몰려서 수액이 잘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水濕이 생긴 것이다.<sup>38)</sup> 그러므로 濕도 火를 내포하고 있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 (4) 臟腑 偏重도 水火와 寒熱의 조절이 안되므로 피부병이 온다

臟腑의 水火와 寒熱이 부조화를 이루면 五臟이 주관하는 皮肉筋脈骨에 영향을 준다.<sup>39)</sup> 이 皮肉筋脈骨도 상호영향을 주어 나중에는 피부로 병이 나타난다. 또한 장부는 경락으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락으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어떤 장부의 병도 피부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 2) 皮膚病의 예방

#### (1) 飲食 양생

첫째, 過食을 삼가야 한다. 둘째,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자극성 음식도 내부의 熱을 조장하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밤늦게 식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넷째, 음주는 적절하면 체내의 血行을 도와주지만 지나치면 內部熱이 발생하여 피부병을 유발한다.<sup>40)</sup> 다섯째, 소아 피부병은 주로 胃腸病에서 오므로 음식양생에 조심하여야 한다. 『東醫寶鑑』에 보면 소아 피부병을 胎熱 또는 胎毒<sup>41)</sup>이라 하고 疳病<sup>42)</sup>이라고 하는데 주로 食積<sup>43)</sup>에서 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돌 이전에는 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sup>44)</sup>.

#### (2) 起居 양생

지나친 활동이나 노역은 發汗으로 체내의 津液을 모순시켜 이로 인해 피부병이 온다<sup>45)</sup>. 그러므로 적절한 활동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밤에 활동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36) 上揭書, p. 946 [熟生風]

37) 上揭書, p. 1096 [燥入血少]

38) 上揭書, p. 1087 [火熱生濕]

39) 上揭書, p. 1107 [積熱]-오장육부에 적열이 있으면 뱀이 붉고 번갈아 나타나며 입안과 혀가 열며 가슴과 손바닥이 달고 안타까와 하며 대소변이 잘나가지 않는다. 혹은 열이 몰려 한데와 뽀두라지 등져 등이 생긴다.

40)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37 [酒毒變爲諸病]

41) 上揭書, p. 1660 [初生解毒法]-갓 난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입안에 구정물이 있으므로 갓 나서 옮기 전에 빨리 부드러운 비단천을 손가락에 감은 다음 황련과 감초를 넣고 진하게 다린 물에 적셔서 입안의 구정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만약 그것을 삼켜서 배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다.

42) 上揭書, p. 1693 [疳病]-감병은 흔히 젖을 정상적으로 먹지 않았거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조절해 먹지 못하여 장위에 적체가 생겨서 된다. 증상은 머리의 피부가 번질번질하면서 팽팽하고 머리털이 가늘기가 없으면서 성글며, 뺨에 주름이 지고 코가 마르며, 입맛이 없고 입술이 희며, 두 눈이 침침하고 짓무르며, 코를 문지르고 눈을 비빈다. 또는 등뼈가 나타나고 몸이 무거우며, 손톱을 뜯고 이를 갈며, 입안이 타면서 목이 마르고 저절로 땀이 난다. 소변이 희며 설사를 하는데, 시큼한 냄새가 나고 배가 불러 오르고 끓으며 癖이 생긴다. 그리고 조열이 나고 혹 몸에 가려운 한데가 많이 생긴다.

43) 上揭書, p. 1705 [積癖]

44) 上揭書, p. 1661 [乳哺法]-젖을 먹인 다음에는 밥을 주지 말고 밥을 먹인 다음에는 젖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젖과 밥이 함께 섞여지면 소화 잘 되지 않고 배 속에 머물러 배가 아프게 된다. 대개 癖이 되거나 積혹은 감질이 되는 것은 다 이런데서 생긴다.

45) 上揭書, p. 1140 [勞倦傷]-勞倦傷은 음허한 것인데 陰虛는 몸 가운데 있는 陰氣와 음식물의 맛이 부족한 것을 말한 것이다. (중략) 지나치게 피로하면 기가 흩어져 숨이 가쁘고, 또 땀이 나서 안팎으로 다 빠짐으로 氣가 소모된다.

24) 上揭書, p. 1065 "양명이란 위경과 대장경으로 무슨 음식이나 다 섭취하는 경맥인데 이것은 비와 폐 2장기가 배합하는 부이다. 그런데 脾는 살을 주관하고 肺는 피모를 주관하므로 肺의 병이 臟에 미치게 된다."

25) 上揭書, p. 889 [陰陽生病]

26) 上揭書, p. 162 [氣爲諸病]

27) 上揭書, p. 772 간은 血을 주관하는데 血은 陰이다. 陰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폐는 기를 주관하는데 그 기가 血을 충동하게 하여 가만히 있던 血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 하나는 간의 작용을 말한 것이고, 하나는 폐가 바탕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들어 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이 되는 것과 같다.

28) 上揭書, p. 209 [血爲氣配]

29) 上揭書, p. 203 [神病用藥訣] 기는 양으로서 경미한 것(부드러운 움직임)을 주관한다

30) 上揭書, p. 735 索痺症-폐가 기를 돌아가게 해서 피모를 덮게 하는데 기가 잘돌지 못하면 피모가 마르고 피모가 마르면 진액이 줄어들는다. 진액이 줄어들면 피부가 상하고 진액이 다 없어지면 손톱이 마르고 털이 바스라 지면서 죽는다.

31) 上揭書, p. 1116 [辨虛陰虛二證]-기가 왕성하면 음혈이 더욱더 소모될 수 있다.

32) 上揭書, p. 1099 [火爲元氣之賊]-화란 모든 물질을 없애지게 한다 쇠를 녹이고 흙이 적어지게 하고 나무를 무성하게 하고 물을 말리는 것이 화다. --화가 동하면 중략-진음을 말린다

33) 上揭書, p. 211 [실혈제중]-열이 음보다 세면 창양이 생긴다.

34) 上揭書, p. 634 [咽喉之病皆屬火]

35) 上揭書, p. 731 [內傷發熱]-내상으로 반진이 돌는 것은 혹 담열이 원인이 되어 돌는 것도 있다.

(3) 性生活 양생

성생활을 삼가야 한다 지나친 성생활은 精을 소모시켜 陰虛를 조성<sup>46)</sup>하므로 피부병이 발생한다.

(4) 七情 양생

七情이鬱結하면 內熱이 발생하여 痰火<sup>47)</sup>가 형성되어 血에 영향을 주어 피부병을 유발하므로 七情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sup>48)</sup>

(5) 목욕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 의복을 여건에 맞게 적절히 입어야 한다.

『東醫寶鑑·小兒門·小兒保護法』<sup>49)</sup>에서는 어린아이의 올바른 의생활 방식을 언급하였다.

(7) 주택환경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실내가 外氣와 너무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피부병의 원인과 예방을 총괄하면, 피부병은 氣血의 부조화로 발생하는데 氣虛로도 오지만 주로 血熱로 발생한다. 痰·風·濕·燥도 火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臟腑偏重으로 水火와 寒熱의 조절이 안 되어도 피부병이 오며, 생활의 부적절로도 온다. 그러므로 飲食, 起居, 性生活, 七情의 절도가 피부병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 특히 남녀에서는 음주, 소아에서는 식적이 피부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음식 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주택환경도 적절치 못하면 피부병을 유발하므로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3. 皮膚病의 일반 치료

1) 증상특징에 따른 치료

피부병의 증상분류는 痒痛, 癩疹, 癩疹, 丹毒, 麻木, 索澤證, 癩風白駮, 黑痣痞子燥證, 贅肉, 疣目, 天泡瘡, 燥癩, 結核, 癭瘤, 疔瘻, 疥癬, 翻花瘡, 毛髮黃落, 鬚髮榮枯, 爪病 등이 있는데 병리와 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痒痛

가려운 것은 陰血이 부족하여 肌肉과 皮膚를 영양하지 못하여 온 것이므로 四物湯에 黃芩을 가하여 달인 물에 浮萍末을 조복하거나 大料四物湯을 복용한다. 피부가 아픈 것은 心이 實한데 속한다.<sup>50)</sup>

(2) 癩疹

피부에 유색의 점이 나타나면서 싸라기 같은 것이 돋지 않은 것을 癩이고, 약간 들뜨면서 싸라기와 같은 것이 돋는 것을 疹이다. 斑疹은 주로 胃에 속한다. 胃의 熱이 手少陰의 火를 도와

手太陰肺經에 들어갔기 때문에 白虎湯·寫心湯·調胃承氣湯을 쓴다. 癩이 비단무늬같이 아롱아롱하고 색이 붉은 것은 胃에 熱이 있는 것이고 빛이 검붉은 것은 胃가 헌 것이다. 또한 斑疹은 陽毒, 溫毒, 熱毒, 時毒으로 오는데 원인은 다 熱이다. 경미한 것은 모기 문자리와 같은데 손발에만 돋고, 심한 것은 가슴과 배에 비단무늬같이 돋는데 잘대로 뜸내는 약을 쓰면 안 된다. 陽毒에는 人蔘白虎湯·三黃石膏湯, 溫毒에는 黑膏·葛根橘皮湯, 熱毒에는 化斑湯(人蔘白虎湯)·豬膽鷄子湯을 쓴다. 임신부가 상한으로 癩이 돋는 데는 梔子大青湯을 쓴다. 陰證發斑은 가슴 등 손발에 드물게 나타나며 색이 약간 붉은데 마치 모기, 파리, 벼룩, 이 등이 문 것과 같다. 이는 肺熱로 인한 것인데 調中湯, 升麻鼈甲湯을 쓴다. 內傷發斑은 반진이 경하면 모기가 문 자리 같은 것이 손발에 많이 돋지만 초기에 頭痛과 發熱은 없다. 胃氣가 아주 허약하거나 痰熱로 오니 調中益氣湯, 黃芪健中湯, 益胃升陽湯, 二陳湯加味 등을 활용한다. 發斑 후는 반진이 돋으려다 돋지 않아 발이 차고 귀가 안 들리며 답답하고 구역이 나며 기침을 하는데 升麻葛根湯으로 그 毒을 헤쳐버려야 한다.<sup>51)</sup> 紫斑이 氣虛로 血이 운행되지 못하여 오면 十全大補湯을 활용한다.

(3) 癩疹

癩疹은 붉은 사마귀 같은 것이 은은히 나타난 것으로 가렵지만 아프지는 않다. 癩疹은 脾에 속한다. 風·熱·濕의 구별이 있고 火를 겸한 경우도 있다. 봄에 발생하는 것은 溫毒으로 升麻葛根湯에 牛蒡子 荊芥 防風을 가하여 쓴다. 흐린 날 더하면 寒邪로 온 것이니 枳實酒를 마시고 枳實 달인 물로 씻고 烏藥順氣散을 복용한다. 癩疹에는 防風通聖散에서 芒硝를 빼고 豆豉와 葱白을 가하고 麻黃을 배로 하여 복용한다. 또한 胡麻散, 消風散, 樺皮散, 清肌散, 加味羌活散, 犀角消毒飲을 쓴다. 癩疹이 혈었을 때는 加味烏荊元을 쓴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風疹이니 風만 치료하면 낫는다. 癩疹에 식초를 먹으면 風疹이 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sup>52)</sup>

(4) 丹毒

丹毒이란 갑자기 몸에 丹砂를 바른 것같이 벌겍게 된 것으로 나쁜 毒과 熱血이 命門에 돌렸다가 君火와 相火가 결합할 때 생긴 것이다.<sup>53)</sup> 더울 때는 通聖散 등 맵고 서늘한 약으로, 추운 때는 葛根, 升麻와 같은 맵고 따뜻한 약으로 풀어 준다. 藍葉散, 拔毒散, 犀角消毒飲, 四順清涼飲, 犀角地黃湯을 활용한다.<sup>54)</sup>

(5) 麻木

麻木은 피부에 氣血運行이 안되므로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것으로 氣虛, 濕痰, 瘀血로 발생한다. 손가락의 麻木은 胃中の 濕痰과 瘀血로 오니 二陳湯加味나 四物湯加味를 쓴다. 手足麻木이 濕痰으로 오면 香蘇散加味를, 精血不足이면 四物湯 合 二陳湯加味를 쓴다. 全身麻木은 氣虛이니 補中益氣湯加味를 쓴다. 또한 麻木에는 人蔘益氣湯(여름철 濕熱), 神效黃芪湯(全身麻木), 沖和補氣湯(睡眠中 麻木), 雙合湯(濕痰 瘀血), 開結舒經湯(婦人 七情 六鬱) 등을 쓴다.<sup>55)</sup>

4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099 (火爲元氣之賊)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면 화가 신에서 일어난다.  
 47) 上揭書, p. 163 (七氣)  
 48) 上揭書, p. 1099 (火爲元氣之賊)·잠부림양지화가 오지에 뿌리를 박고 있는데 육욕침정이 지나치면 화가 일어난다. 몹시 성내면 화가 간에서 일어나고 취하거나 지나치게 먹으면 화가 위에서 일어나고 너무 슬프하면 화가 폐에서 일어난다. 신은 중삼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태우면 죽는다  
 49) 上揭書, p. 1661 (小兒保護法) 갓난아이의 피부는 단단하지 못하므로 두꺼운 옷으로 너무 덥게 해 주면 피부와 혈액이 상해서 한데가 생길 수 있다. 땀이 난 다음에 땀구멍이 잘 닫히지 않아서 風邪가 쉽게 들어가게 된다. 만일 날씨가 따뜻할 때에 갓난아이를 안고 나가서 자주 바깥 바람과 햇볕을 쬐어 주면 기혈이 든든해져서 바람과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으며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50) 上揭書, p. 728

51) 上揭書, p. 728-731  
 52) 上揭書, p. 731-732  
 53) 上揭書, p. 1717 [丹毒]  
 54) 上揭書, p. 1717 [丹毒]  
 55) 上揭書, p. 734 [麻木]

(6) 索澤證

색택증은 피부에 윤기가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털이 빠지고 손톱도 마른다. 이는 精血不足, 足少陽經病, 肺氣虛, 心肺虛, 惡露로 발생한다. 肺氣虛는 四君子湯, 心肺虛는 八物湯을 쓴다.<sup>56)</sup>

(7) 癩風白駮

피부의 살빛이 변하여 붉은 것은 紫癩風이고 흰 것은 白癩風이다. 피부에 흰점이 점점 더 커져 버짐 같으나 혈지 않는 것은 白駮이다. 이는 모두 風邪가 피부에 엉켜서 온 것인데 胡麻散, 蒼耳散, 追風散, 三黃散, 加減何首烏散, 如聖膏을 쓴다.<sup>57)</sup> 또한 黃芪十補湯, 益胃升陽湯, 理中湯 등도 활용한다.

(8) 黑痣鬚子, 贅肉(근살)과 疣目(무사마귀)

黑痣(흑지: 검은 점)과 黑鬚(흑염: 검은 사마귀)는 風邪가 변해서 생긴 것으로 蘆薈膏, 取痣餅藥, 去黑鬚子方을 쓴다.<sup>58)</sup> 贅肉은 여러 가지 현대에 뱀처럼 생긴 곳은 살이 몇 치쯤 나온 것으로 노육(贅肉)이라고 한다. 유향을 곱게 가루를 내어 바른다.<sup>59)</sup> 疣目(무사마귀)은 손발에 갑자기 콩알 같거나 몽친 근육 같은 것이 5~10개 연달아 생기는 것으로 후자(瘰子)라고도 한다. 이것은 風邪가 肌肉에 들어가 변해서 생긴 것이다. 蒴藋(삭조: 말오줌나무)의 붉은 씨를 부스러뜨려 바르거나 苦菜(고채: 썸바귀)의 흰진을 바른다.<sup>60)</sup>

(9) 天庖瘡

피부병의 형상이 매화 같은데 화끈화끈 달고 빨갱게 되며 진물이 흐르고 가렵고 아프다. 초기에는 防風通聖散을 쓰되 麻黃을 빼고 1첩을 먹어서 속에 있는 독을 없애고 그 다음 芒硝와 大黃을 뺀 1첩을 먹고 땀을 내서 겉에 있는 독을 헤쳐 버려야 한다. 다음 加減通聖散이나 加減通聖丸을 많이 먹어야 한다. 天庖瘡에는 쇠고기, 말고기, 개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물고기, 생것, 찬 음식, 술, 국수, 차, 기름기 있는 것, 매운 것, 열나게 하는 것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술과 성생활은 절대로 금하며 소금은 반드시 볶아서 먹어야 한다.<sup>61)</sup>

(10) 瘰癧, 結核과 癭瘤

瘰癧은 목의 앞과 옆에 콩알이나 은쟁거 만한 멍울이 생기는 것이다. 가슴, 옆구리, 겨드랑이에 돌같이 단단하고 말조개 만한 것은 馬刀인데 모두 瘰癧에 속한다. 초기는 少陽經에 생기다가 陽明經이나 全身으로 퍼지기도 한다.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鬱氣가 몰려서 생기며 전변되기도 한다. 성생활과 지나친 생각, 기름진 음식을 금한다. 瘰癧이 肝膽經에 있고 惡寒과 身熱이 나고 화끈화끈 달면서 아프면 주로 梔子清肝湯을 쓰며 益榮湯, 柴胡清肝湯도 쓴다. 怒火가 원인이면 清肝解鬱湯을 쓰고 虛하면 托裏益氣湯, 益氣養榮湯, 十全大補湯에 香附子 遠志 貝母를 가해 쓴다. 肝燥로 근이 당기면 補中勝毒餅을 쓰고, 寒熱이 있으면 單夏枯草散을 쓴다. 瘰癧의 통치방으로는 化氣調經湯, 貓頭丸, 海藻散堅丸, 散腫潰堅湯, 內消丸, 腦礬丸, 夏枯草散을 쓴다. 馬刀瘡

에는 마땅히 連翹散堅湯, 消腫湯, 柴胡通經湯을 써야 한다.<sup>62)</sup>

結核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痰飲門」의 痰塊<sup>63)</sup>, 「癭疽門」의 流注骨疽<sup>64)</sup> 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두 痰飲으로 생긴 멍울이다. 이때는 늘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약을 써서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킨 다음 痰을 삭히고 멍울을 헤치는 약을 써야 하는데 二陳湯에 大黃 連翹 柴胡 桔梗 白芥子 黃連 薑汁炒에 竹瀝를 더하여 복용한다. 목의 結核에는 二陳湯에 大黃 酒炒 桔梗 柴胡 連翹를 가하여 쓰고, 팔에는 二陳湯에 連翹 防風 川芎 黃芩 酒洗 蒼朮 皂角子 白僵蠶를 가하여 달인 후 麝香을 조금 넣어 먹는다. 온몸에 생긴 것은 開氣消痰湯, 十六味流氣飲, 消風化痰湯, 加味小胃丹, 竹瀝達痰丸, 海帶丸, 舍化丹을 쓴다. 목구멍에 痰이 멍쳐있고 주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을 느끼면 榮衛返魂湯에 天南星 半夏를 넣어 쓴다.<sup>65)</sup>

癭瘤는 처음에는 梅花나 자두씨 만하나 커지면 달걀이나 술잔만 하다. 癭瘤는 다 氣血이 凝滯하여 멍쳐서 된 것이다. 癭은 근심과 성을 내서 心肺를 상하여 생긴 것으로 목이나 어깨에 많이 생긴다. 癭는 힘든 일로 허해지면 사기가 경락의 虛한 곳에 머물러 생기므로 아무 데나 생긴다. 癭瘤初期는 十六味流氣飲을 통용하고, 腦礬丸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南星膏을 붙인다. 海藻類는 다 癭瘤와 結氣를 낮게 하므로 海藻와 昆布를 같은 양으로 하여 가루내서 꿀에 반죽한 다음 알약을 만들어 늘 입에 머금고 녹여 먹는다. 夏枯草도 癭瘤와 結氣를 삭게 하므로 물에 달여 자주 먹으면 좋다.<sup>66)</sup>

(11) 疔瘻

疔瘻는 癭疽 속의 고름과 썩은 뼈가 오랫동안 있으면 터져서 진물이 나오는 것이다.<sup>67)</sup> 흔히 목과 겨드랑이, 前陰과 항문사이에 생기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惡寒과 發熱이 난다. 치료는 附子 뜸법과 마늘떡 뜸법을 써서 구멍이 생기게 하여 翬霞散이나 翬霞錠子를 꽂아 넣고 고약을 붙인다. 치법은 風冷을 발산시키는 것이 급하므로 溫解散, 內塞散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는 牽牛酒로 진물을 없애고 다음은 새살 나게 平肌散을 쓴다. 통용으로 加味腦礬丸, 內生肌丸, 乳麝雲母膏, 溫經丸을 쓴다. 虛하면 十全大補湯을 활용한다. 瘻瘡에는 지나친 七情과 성생활을 금하는데 더욱 성내는 것을 금한다. 어기면 瘻瘡이 더 커지고 진물이 더 생긴다.

(12) 疥癬

疥는 대부분 熱을 끼고, 癬는 대부분 濕을 낀다. 疥는 각각류의 겹집을 덮은 것 같고, 癬는 이끼가 퍼져있는 것 같은데, 둘은 같은 것이다. 통용으로는 一上散, 秘傳一擦光, 當歸飲子, 何首烏散, 蕪荑散, 浮萍散 등을 쓴다. 疥癬에 통증이 심하면 寒水石을 넣고 가려우면 貫衆을 넣으며, 약간 가려우면 蛇床子를 넣고, 벌레가 있으면 雄黃을 넣으며,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을 좋아하면

62) 上掲書, p. 1476-1477 [瘰癧]  
 63) 上掲書, p. 287 [痰塊]  
 64) 上掲書, p. 1444-1445 [流注骨疽] - 평소 담화가 있는데 혹 중간에 감촉되어 그 사기가 돌아다니다가 담이 있는 곳에 머물러 형성된 것으로 유주는 상한의 남은 독으로 생기고 골저는 유주가 심하게 된 증이다. 골저란 끊어터진 다음 기혈이 영양하지 못하여 뼈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는 것인데 고름, 진무른 살, 부스러진 뼈가 다 나와야 낫는다.  
 65) 上掲書, p. 1483  
 66) 上掲書, p. 1485 [癭瘤]  
 67) 유주골저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5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735 [索澤證]  
 57) 上掲書, p. 736 [癩風 癩瘻風 白駮]  
 58) 上掲書, p. 737 [黑痣鬚子]  
 59) 上掲書, p. 743 [贅肉]  
 60) 上掲書, p. 743 [贅肉]  
 6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469 [天庖瘡]

硫黃을 넣는다.<sup>68)</sup>

(13) 翻花瘡

번화창이란 헌데서 살이 버섯같이 빠져 나오거나 뱀같이 생긴 살이 몇 치나 되게 빠져 나오는 것이다. 石雄黃 가루를 붙인 다음 十全大補湯이나 八物湯을 쓰는데 人蔘 黃芪 當歸 白朮의 양을 곱으로 하여 쓴다.<sup>69)</sup> 이로 보면 翻花瘡은 陰陽氣血이 부족하여 온 것이다.

(14) 毛髮黃落 鬚髮榮枯

모발도 인체의 표면에 있으므로 피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毛髮은 腎에 속하고 <sup>70)</sup>, 血의 나머지며<sup>71)</sup>, 十二經의 氣血 상태<sup>72)</sup>나 五臟 기능<sup>73)</sup>을 나타내므로 인체전체의 精血이나 장부기능, 기혈운행의 상태를 진단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머리털이 흰 것은 精血이 부족한 것이므로 延年益壽不老丹을 쓴다. 肺의 허손으로 피부가 푸죽어 들면서 머리털이 빠지면 八物湯을 쓴다. 脈이 弦하고 氣가 약해서 皮毛가 마르면 黃芪健中湯, 四物湯을 쓴다. 膽의 怒火, 風氣, 水氣不足은 모두 머리털이 타고 마른다. 六味地黃丸, 防風通聖散, 四物湯을 활용한다. 젊어서 머리털이 빠지거나 수염이 빠지면 火가 성하여 血이 마른 것이므로 地黃苜, 天門冬膏을 쓴다. 腎梁厚味로 濕熱이 생겨도 머리털이 빠지므로 防風通聖散(大黃酒炒 3회)에서 芒硝를 빼고 四物湯酒製를 합하여 치료한다.<sup>74)</sup>

(15) 爪病

五臟의 상태는 다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肝의 상태는 손톱으로 나타난다. 肝에 熱이 있으면 손톱이 괴렇게 되면서 마른다.<sup>75)</sup> 그러므로 손톱의 이상은 肝의 병으로 보고 치료하면 된다. 肝이 허하면 四物湯, 淸肝湯, 補肝丸을 쓰고, 肝이 實하면 瀉青丸, 洗肝散, 當歸龍苜丸을 쓴다.<sup>76)</sup>

2) 발생부위에 따른 치료

피부는 장부와 연계되어 있어 인체의 전면 측면 후면에 따라 흐르는 기운이 다르고, 상부 하부에서도 다르다. 上部는 주로 風熱 痰火로, 下部는 寒濕으로 병이 많이 온다.<sup>77)</sup> 이와 같이 한의 학에서는 각 부위마다 적용되는 생리·병리가 다르다. 여기서는 머리, 얼굴, 눈, 코, 목, 가슴, 배꼽, 생식기, 사지와 수족으로 나

누어서 치법을 살펴본다.

(1) 머리

癩頭瘡은 머리에 진물과 부스럼이 생긴 것인데 주로 風熱로 옴으로 酒歸飲이나 防風通聖散을 쓴다. 또는 소금 끓인 물로 씻은 다음 一上散을 붙이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도 잘 낫는다.<sup>78)</sup> 頭生白屑(흰비듬)은 肺가 風熱을 받아서 생긴 것으로 消風散을 쓴다.<sup>79)</sup>

(2) 얼굴

風刺(여드름), 粉刺(분가시), 黚黯(기미), 酒皰(비사증), 瘰(뽀루지 여드름) 癩(땀띠), 肺風瘡은 모두 얼굴의 병이다. 얼굴에 홍자색의 瘡이 생기거나 붓는 것은 脾肺에서 風濕이 결합하여 熱이 발생하여 생긴 것이므로 升麻胃風湯을 가감하여 쓴다. 기미는 風邪가 皮膚에 들어오거나 痰이 臟腑에 스며들면 생긴 것인데 血虛, 胃病, 子宮病 등으로 옴으로 逍遙散, 平胃散, 濟陰丹 등을 활용한다. 瘰(비사증)은 일한 뒤 땀날 때 風寒을 받아 相搏되어 발생하고, 그것이 물리면 瘰가 된다. 瘰(뽀루지 여드름)는 땀과 기름기가 엉겨서 생긴 것으로 防風通聖散에서 芒硝를 빼고 白芍 當歸를 배로 넣고 쓴다. 얼굴에 熱毒 瘡癤, 酒皰鼻, 땀띠가 생긴 데는 栢連散, 硫黃膏, 白附子散, 淸上防風湯 등을 써야 한다. 癩(땀띠)는 여름철에 땀을 지나치게 흘려서 온 것으로 癩(땀띠)가 瘡으로 변한 것은 玉女英과 玉粉散을 쓴다. 瘰에 靑蒿 달인 물로 씻는다. 얼굴에 나는 일체의 風刺, 粉刺, 雀卵斑(주근깨), 기미, 검은 사마귀에는 玉容散, 連翹散, 紅玉散, 玉容西施散, 黃帝塗容金面方, 玉容膏 등을 써야 한다<sup>80)</sup>. 임상에서 보면 얼굴병은 風熱<sup>81)</sup>과 胃腸病<sup>82)</sup>으로 많이 온다. 風熱病에는 消風散·防風通聖散 등을, 肝風熱에는 洗肝明目湯을, 心火는 黃連湯을 쓸 수 있다. 胃腸病에서는 胃熱에는 升麻黃連湯을, 痰火는 化痰淸火湯, 二陳湯 加 蒼朮 白朮 川芎 山查, 食傷에는 平胃散·陶氏平胃散·錢氏異功散에 가미하여 쓴다. 飲酒로 인한 위장병으로는 對金飮子加味를 활용한다. 얼굴과 四肢<sup>83)</sup>에 같이 나타나는 피부병도 주로 胃病으로 온다. 이마는 肺에 속하며<sup>84)</sup> 任督脈이 지나가므로 肺熱과 任督脈病으로 淸肺散·溫經湯을 쓴다. 턱은 腎<sup>85)</sup>에 속하므로 조직으로는 陰虛로, 운행으로는 氣虛로 병이오니 六味地黃丸·益胃升陽湯을 쓴다.

(3) 눈

驗生風粟은 눈꺼풀 속에 처음에는 좁쌀같이 생겼다가 점차 커져서 흰 쌀알만하게 되면서 별경기도 하고 희기도 한 것인데 간에 痰血이 멩쳤거나 脾熱로 인한 것이니 消毒飲(加味荊黃湯)을 쓴다.

(4) 코

鼻齧는 코끝이 붉은 것인데, 심하면 紫黑色이 된다. 대부분 술로 오는데 血熱이 肺로 들어가 오래 울체되어 血이 엉기고 탁

68) 上揭書, p. 1491  
 69) 上揭書, p. 1505 [翻花瘡]  
 70) 上揭書, p. 793 [髮屬腎]  
 71) 上揭書, p. 793 [髮者血之餘] 머리털에 윤기가 없으면 血이 부족한 것이고 머리털이 누렇다면 血이 열을 받은 것이고 머리털이 희면 血이 손상된 것이다.  
 72) 上揭書, p. 793 [十二經毛髮多少] 눈썹 구렛나루 턱수염으로 태양경 소양경 양명경의 기혈의 다소를 알 수 있다. 눈썹이 윤기나면 태양경에 血이 많고 구렛나루와 턱수염이 많은 것은 소양경에 血이 많은 것이고 턱수염이 많은 것은 양명경에 血이 많은 것이다  
 73) 上揭書, p. 793 [髮尾鬚各有所屬] 머리털 눈썹 수염으로 심간신의 기운과 조직을 알 수 있다. 머리털은 심속으로 화기, 눈썹은 간속으로 목기, 턱수염은 신속으로 수의 기운을 받아서 생긴 것이니 이것을 보면 이들 장기 기운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의 상태는 수염으로 신의 상태는 머리털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부의 조직을 본 것이다. 이 두가지 관점을 결합하면 장부의 상태를 알 수 있다.  
 74) 上揭書, p. 797 [鬚髮黃落]  
 75) 上揭書, p. 772 [手爪占病]  
 76) 上揭書, p. 306 [肝病治法]  
 77) 머리병은 주로 風熱痰火로 옴고, 다리병은 주로 寒濕으로 옴으로 풍열에는 防風通聖散을 쓰고, 한습에는 五積散을 쓴다.

78) 上揭書, p. 1495 [癩頭瘡]  
 79) 上揭書, p. 504 [頭生白屑]  
 80) 上揭書, p. 515  
 81) 얼굴은 머리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속하므로 풍열과 담화병이 많다.  
 82) 얼굴에는 위경과 대장경이 주로 분포한다.  
 83) 얼굴병은 위에 속하고 사지는 비위에 속하므로 얼굴과 사지의 피부병은 위장을 다스리면 된다.  
 84) 얼굴을 하도로 보면 상부는 화이므로 心에 속하고 낙서에서는 금이므로 폐에 속한다.  
 85) 얼굴을 하도에서 보면 하부는 수이므로 腎에 속한다.

해지면서 붉게 변한 것이다. 혹 술을 마시지 않고 온 것은 肺風瘡인데 역시 血熱이 肺에 들어간 것이다. 이때는 모두 淸血四物湯과 梔子仁丸을 함께 복용하고, 硫黃散을 外用한다. 酒齧鼻에는 凌霄花散, 參歸丸 등을 써야 한다. 肺風瘡에는 肺風丸, 升麻湯, 淸肺飲子 등을 써야 한다.<sup>86)</sup>

(5) 목

목의 側面은 足少陽 膽經病이므로 肝膽의 火를 瀉하여 주는 梔子淸肝湯을 주로 쓴다.<sup>87)</sup>

(6) 가슴

가슴병은 주로 痰으로 많이 발생하므로<sup>88)</sup> 二陳湯, 參蘇飲, 腎氣丸을 활용한다

(7) 배꼽

배꼽병은 腸癰<sup>89)</sup>에 해당하므로 黃連平胃散을 쓴다

(8) 생식기

陰瘡<sup>90)</sup>에는 3종류가 있는데 濕陰瘡, 妬精瘡, 陰蝕瘡(下疳瘡이라고도 한다)이다. 濕陰瘡은 腎虛한데 風濕의 사기가 허를 틈타 생긴 것으로 가렵다가 瘡이 되어 진물이 나오면서 疥癬처럼 된다. 妬精瘡은 장성한 나이에 혼자 살아서 色慾이 동하여, 썩은 정액이 음경 속으로 유입되어 생식기에 瘡이 생기는 것이다. 처음 생길 때는 음경의 끝에 좁쌀 같은 것이 있고 문지르면 통증이 심하며 맑은 농이 나오고 음경을 파먹어 들어가서 크게 아프다. 陰蝕瘡은 熱이 下焦에 뭉쳐 經絡이 막히거나, 자궁에 썩은 精液이 머물거나, 월경이 끝나지 않았을 때 교합하거나, 房勞 후 씻지 않아 나쁘고 더러운 것이 머물러 생겨서, 음경에서 고환까지 붓고 아프며 소변이 찢끔찢끔 나온다. 오래되면 터지고 문드러져서 살이 먹어 들어가고 농혈이 멎지 않아 下疳瘡이 되고, 낫지 않으면 반드시 楊梅瘡이 된다. 여자의 생식기 안에 생기는 것도 疔蝕瘡과 아주 유사하나 아프지 않은 것만 다를 뿐이다. 이때는 仙遺糧湯을 먹어서 예방해야 한다. 寒熱이 있고 오줌이 澀하면 八正散을, 濕熱이 심하여 붓고 아프며 오줌이 澀하면서 흰 진물이 나오면 龍膽瀉肝湯을 쓴다. 부은 것이 터진 후에는 八物湯에 柴胡 梔子 知母를 넣어서 오랫동안 복용한다. 下疳瘡은 便毒<sup>91)</sup> 厲風瘡<sup>92)</sup>으로 진행되므로 먼저 升麻葛根湯으로 發散시키고 계속하여 涼血解毒丸을 먹는다. 大豆甘草湯으로 축이고 洗毒散을 달인 물에 목욕한 후, 磨風膏를 따뜻하게 적셔준다. 消疔敗毒散, 涼血解毒丸 등을 통용한다<sup>93)</sup>

(9) 사지와 수족

四肢의 피부병은 脾胃가 나쁘거나 氣血不足, 胞가 나빠서 오므로<sup>94)</sup> 益胃升陽湯 · 八物湯 · 溫經湯 · 生血潤膚飲 등을 활용한다

다. 손에 발병하는 代指(생안손)는 먼저 손가락 끝이 붓고 화끈 달면서 아프다가 손톱 둘레가 굽아서 터지고 심해지면 손톱이 빠지는 것인데 천사두창(天蛇頭瘡)이라고도 한다. 雄黃 달걀 蜈蚣으로 치료한다.<sup>95)</sup> 또한 手足皸裂(군열)은 겨울에 손발이 터서 아픈 것으로 黃臘膏, 臘享膏를 쓴다.<sup>96)</sup> 다리의 피부병은 腎臟風瘡과 血風瘡, 下疳瘡, 膝瘡에서 나타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腎臟風瘡은 초기에는 양 발에서 때로 熱이 나고 발꿈치가 아프다. 대부분 음낭 밑이 축축하고 가렵거나 정강이 안쪽이나 정강이 위에 癬(버짐)과 같은 瘡이 생기며 혹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귀가 어두워진다. 점점 커져 정강이나 허벅다리나 온몸에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다. 원인은 주로 精血의 不足과 風冷의 편승으로 발생하므로 活血驅風散, 腎氣丸, 四生丸, 黃芪丸을 먹고 곁에는 鷄心散을 쓴다. 血風瘡은 腎臟風瘡과 비슷한데, 三陰經에 風熱이나 鬱火로 血이 말라서 생긴다. 가려운 것이 일정하지 않고 膿水가 방울져 나오며, 潮熱 盜汗이 있으면 四物湯에 浮萍 黃芩을 넣거나 當歸拈痛湯을 쓰고, 곁에는 磨風膏나 大馬齒膏를 바른다.<sup>97)98)</sup> 下疳瘡도 腎臟風瘡과 비슷하여 정강이에 생긴다. 이것은 맞아서 생기기도 하는데, 瘡口가 좁으나 속은 매우 넓고 피부가 대나무 피막처럼 얇으며 몹시 가렵고 아프며 누른 물이 방울져 나오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 檳榔散을 붙인다.<sup>99)100)</sup> 膝瘡은 양쪽 다리가 붓고 진물러서 나쁜 냄새가 나고 걸어다니기도 힘든 것인데 정강이뼈 위에 생기므로 중하다. 臘攀丸, 八物湯, 八味丸, 黃芪丸을 쓴다.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大苦蔘丸을 써야한다<sup>101)</sup>.

3) 발병원인에 따른 치료

피부병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여기서는 臟腑熱로 나타나는 臟腑積熱, 飲酒, 凍瘡, 湯火瘡, 漆瘡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臟腑積熱

오장과 육부에 積熱이 있으면 뺨이 붉고 煩渴이 나며 입안과 혀가 열며, 가슴과 손발바닥이 달고 안타까워하며, 대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혹은 氣가 들지 않아 몰려서 熱이 나고 헌데와 뺨두라지, 癰疽 등이 생긴다. 積熱을 없애려면 三黃湯, 三黃元이 제일 좋은 약이다. 대개 熱은 心에서 나오기 때문에 洗心散을 써야 한다. 熱은 피를 상하므로 四順淸涼飲을 써야 한다.<sup>102)</sup>

(2) 飲酒

만일 술을 마신 뒤에 국수를 먹거나 밥을 먹은 뒤에 술을 마시면 熱이 생기기 아주 쉽다. 積熱에는 三黃湯, 三黃元, 加減三黃元, 涼膈散, 紫雪, 紅雪通中散, 妙香丸 등을 쓰는 것이 좋다.<sup>103)</sup>

(3) 凍瘡

겨울에 얼어서 헌데가 생겨 진물이 나오는 것으로 生膚散, 白薇散, 如神散, 臘享膏를 쓴다.<sup>104)</sup>

8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595 [鼻齧]  
 87) 上揭書, p. 1476 [瘰癧]  
 88) 上揭書, p. 782 [心胃痛宜吐] - 凡心痛 皆痰粘  
 89) 上揭書, p. 1438 [腸癰腹癰]  
 90) 上揭書, p. 1496 [陰蝕瘡]  
 91) 上揭書, p. 1441 [便毒] 충맥 임맥 꺾음경이 지나가는 곳인 자개미(서해부)에 생긴 웅이다. 변옹, 혈산 또는 과마웅이라고 한다. 열이나 혈이 뭉쳐왔으므로 먼저 오령산에 대황을 가하거나 부원통기산을 쓴다. 통증이 심하면 선방활명음을 쓴다. 오향연교탕도 쓴다.  
 92) 대풍창을 달리 부른 이름이다  
 93)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496 [陰蝕瘡]  
 94) 수족은 비위를 운화하며 경락이 있어 기혈을 운행하며 경락의 뿌리는

포이므로 비위병, 기혈병, 포의 병은 수족으로 나타난다.  
 95) 上揭書, p. 772 [代指]  
 96) 上揭書, p. 773 [手足皸裂]  
 97) 上揭書, p. 1502 [腎臟風瘡]  
 98) 上揭書, p. 820, [陰蝕濕痒]  
 99) 上揭書, p. 1502  
 100) 上揭書, p. 1505  
 101) 上揭書, p. 1499  
 102)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07  
 103) 上揭書, p. 1107  
 104) 上揭書, p. 1503 [凍瘡]

(4) 湯火瘡

끓는 불이나 불에 덴 것인데, 赤石脂散, 保生救苦散, 黃栢散, 冰霜散, 四黃散을 쓴다.<sup>105)</sup>

(5) 漆瘡

옷에 중독되어 살이 혈면서 가렵고 붓는다. 생 계의 누른 것을 바르거나 가재즙을 내서 바른다. 생강즙, 달걀노른자위를 바르기도 한다.<sup>106)</sup>

4) 발병시기에 따른 치료.

피부병의 발생시간과 발생부위가 병리해석의 단서를 제공한다. 하루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氣機 작용을 살펴보면 밤은 모으고 낮은 흠는다. 피부병이 야간에 심한 것은 陰虛, 血熱, 食積, 脾熱<sup>107)</sup>로 발생하니 滋陰降火湯, 六味地黃丸, 四物湯 加 知母 黃柏 黃連 梔子 柴胡 牡丹皮를 쓴다<sup>108)</sup>. 食積에는 陶氏平胃散, 脾熱에는 瀉黃散을 쓴다. 환절기의 피부병은 氣虛로 補中益氣湯을 가미하여 활용한다. 봄에 발생하는 것은 溫疫이므로 升麻葛根湯을 쓴다.<sup>109)</sup>

5) 수반증상에 따른 치료

인체는 유기체로 精氣神血 상호관계, 臟腑 상호관계, 經絡 상호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질병발생 부위가 직접인인 경우가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피부에 영향을 주어 피부병이 발생하므로 전신생태를 반드시 살펴야한다. 胃腸病이 있으면 平胃散, 錢氏異功散, 二陳湯 加 蒼朮 白朮 川芎 山楂, 消風散, 化痰清火湯 등을 활용한다.<sup>110)</sup> 胃 수술이나 大病 後면 脾胃를 조리해 줄 수 있는 藜苓白朮散, 益胃升陽湯을 활용한다.<sup>111)112)</sup> 胸痞症이 있으면 대체로 食積과 痰飲으로 오므로 香砂養胃湯, 加味二陳湯, 化痰清火湯을 활용한다.<sup>113)</sup> 자궁은 胞에 속하며 血의 집이므로<sup>114)</sup> 전신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月經의 形體와 色·週期·痛症으로 氣血의 운행상태를 파악하여 이상이 있으면 이를 치료하면 피부병도 치료된다.<sup>115)</sup> 입술이 건조하고 冷帶下가 있으면 任脈病이니 溫經湯을 쓴다<sup>116)</sup>. 發汗이 많으면 津液이 손상되어 피부를 적셔주지 못하므로 이를 치료하여야한다. 만약 손바닥의 땀이 많으면 脾胃 기능을 조절하여야한다<sup>117)</sup> 便秘는 주로 陰血이 부족해서 오므로 滋陰降火湯이나 芎歸湯 등을 쓴다. 눈병을 수반하면 주로 肝瘀血,<sup>118)</sup> 風熱, 腎水不足<sup>119)</sup>을 보고 치료한다. 중이염은 腎臟風熱이나 少陽經熱로 오니 蔓荊子散, 小柴胡湯 등을 활용한다.<sup>120)</sup> 舌痛이 있으면 心, 小腸의 熱로 보고 導赤

散, 十味導赤散을 쓴다.<sup>121)</sup> 머리가 희다면 精血이 고갈되어 온 것이므로 延年益壽不老丹, 何首烏散 등을 활용한다.<sup>122)</sup>

4. 皮膚病의 형상의학적 치료

1) 男女老少에 따른 치료

男子는 陽에 속하여 흠는 성질이 강하고<sup>123)</sup> 先天의 腎을 위주로 하므로 精不足으로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六味地黃丸, 八味丸, 腎氣丸을 활용한다. 또한 지나친 飲酒로 內熱이 발생하여 陰血을 손상하므로 피부병뿐만 아니라 많은 병을 유발한다. 酒毒에는 葛花解醒湯, 對金飲子, 防風通聖散, 升麻葛根湯, 補中益氣湯加味 등을 활용한다. 問診할 때 반드시 飲酒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女子는 陰에 속하여 모이는 성질이 강하고<sup>124)</sup> 後天의 胃를 위주로 하므로 鬱火나 食傷, 痰火, 血不足으로 발생한다. 胃病에는 平胃散, 二陳湯 加 蒼朮 白朮 川芎 山楂, 香砂平胃散, 化痰清火湯(嘈雜), 蠶蔥散(胃冷), 人蔘養胃湯(外感兼內傷) 등<sup>125)</sup>을 쓴다. 피부병을 精血病으로 보면 여자는 血病이니 四物湯이 기본이다. 血病에는 四物湯 加 浮萍草 黃芩, 涼血飲, 逍遙散 등을 활용한다. 여자도 최근에는 酒毒으로 피부병은 물론 頭痛 不妊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酒毒에는 對金飲子加味方이나 補中益氣湯加味方을 많이 활용한다. 老人의 피부병은 虛勞<sup>126)</sup>로 많이 발생하므로 十全大補湯<sup>127)</sup>을 많이 활용하는데 오래된 피부병의 榮衛運行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활용한다. 小兒는 先天虛弱과 臟腑의 虛實<sup>128)</sup>로 발생하고, 후천적으로는 食積<sup>129)</sup>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早産兒는 土氣不足으로 精氣神血이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는 十全大補湯을 활용하며, 早産兒나 虛弱兒가 환절기만 되면 皮膚의 이상이 발생하면 補中益氣湯을 활용한다<sup>130)</sup>. 소아가 精血이 부족하여 온 피부병에는 芎歸湯, 四物湯, 滋陰降火湯, 六味地黃丸, 腎氣丸, 瓊玉膏를 많이 활용한다. 小兒는 주로 五臟六腑의 虛實寒熱을 보고 용약한다. 胃實은 瀉黃散, 胃虛는 補中益氣湯·益胃升陽湯·調中益氣湯·異功散을 쓴다. 食傷症은 陶氏平胃散·錢氏異功散을 활용하고, 痰熱에는 抱龍丸을 쓴다. 小兒 陽明形은 脾胃의 熱이 조절 안 되어서 오므로 瀉黃散으로 胃熱을 없애거나 升麻葛根湯으로 脾胃熱을 조절한다.

2) 肥瘦에 따른 치료<sup>131)</sup>

(1) 上下論의 관점(虛實)

上下論은 머리와 몸통의 비례관계로 본다. 頭大身小한 사람은 圓, 身大頭小한 사람은 方에 속한다. 頭大身小한 사람은 圓에

105) 上掲書, p. 1504 [湯火瘡]  
 106) 上掲書, p. 1505 [漆瘡]  
 107) 上掲書, p. 1100 [脾熱]  
 108) 上掲書, p. 1102 [熱有晝夜之分]  
 109)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383 1384 [瘟疫治法]  
 110) 上掲書, p. 1152 [嘈雜]  
 11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57 [內傷助補藥]  
 112) 上掲書, p. 1144 [內傷脾胃則不思食 不嗜食]  
 113) 上掲書, p. 674 [胸痞]  
 114) 上掲書, p. 357 [胞爲血室]  
 115) 上掲書, p. 359 [月候不調]  
 116) 上掲書, p. 371 [帶下治法]  
 117) 上掲書 p. 265 [手足汗]  
 118) 上掲書, p. 525 [自者肝之竅]  
 119) 上掲書, p. 525 [眼病所因]  
 120) 上掲書, p. 582 [耳痛成膿耳]

121) 上掲書, p. 600 [舌屬心]  
 122) 上掲書, p. 794 [鬚髮榮枯]  
 123)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74 [用藥]  
 124) 上掲書, p. 174 [用藥]  
 125) 上掲書, p. 1152 [嘈雜]  
 126) 上掲書, p. 1168 [虛勞症]  
 127) 上掲書, p. 1176 [十全大補湯]  
 128) 上掲書, p. 1673 [五臟相乘]  
 129) 上掲書, p. 1705 [積癖]  
 130) 박정현 소화기 질환으로 유발된 피부병의형상의학적 치료 p. 34  
 하도에서 토라는 것은 중양의 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체의 가장 바깥을 호위하는 것도 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것도 토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31)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적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에서 요약한 것임.



속하니 잘 돌아가므로 虛하기 쉽다. 中央에서 힘의 偏重이 없으므로 症狀이 全身에 걸쳐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 또 消耗性的 虛熱이기 때문에 가려움증의 양상도 가려워서 긁으면 쉽게 가라앉게 되며, 은근하며 지속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治法은 虛熱을 해소하는 방법을 응용한다. 반면에 身大頭小者는 方에 속하니 잘 안 돌아가므로 實하기 쉽다. 中心에서 운동의 편중으로 피부병도 일부에 편중되며 實證이다. 治法은 積과 鬱을 없애는 行氣, 導痰, 消導가 위주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上下論의인 관점에서의 피부병은 圓에 해당하는 사람은 虛熱性이 많고, 方에 해당하는 사람은 鬱熱이나 積熱이 많다.

(2) 左右論의인 관점(氣血)

氣血은 구조와 운행의 두 가지 면을 가진다. 구조면으로는 肥瘦로 보고, 운행면으로는 눈과 코의 升降으로 보는데 형상의학에서는 六經形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構造에서 氣는 형틀을 의미하고, 血은 형틀을 채우는 요소를 뜻한다. 氣가 중심인 사람은 骨格이 발달하여 瘦人에 해당하고, 血이 중심인 사람은 肌肉이 발달하여 肥人에 해당한다. 氣血論에서 의미하는 瘦人和 肥人の 특징은 다음과 같다. 瘦人은 筋骨이 발달하고 코가 발달, 多氣少血에 속하는 사람(多氣가 의미하는 것은 뼈가 발달), 몸이 더운 사람을 말한다. 肥人은 肌肉이 발달하고 입이 발달, 多血少氣에 屬하는 사람(多血이 의미하는 것은 肌肉이 발달), 몸이 차가운 사람을 말한다.

(3) 前後論의인 觀點(燥濕)<sup>132)</sup>

前後論에서는 그 사람의 身長을 살펴야 한다. 키가 큰 경우는 後가 발달하고 燥가 바탕이 된다. 키가 작은 사람은 前이 발달하고 濕이 바탕이 된다. 즉 形象論에서 '燥한 사람'은 키가 크고 인체의 뒷편이 발달하고, 그 성질은 燥하며 冷하다(肺, 腎). 한편 '濕한 사람'은 키가 작고 인체의 前面이 발달한 사람을 말하고, 그 성질은 濕하고 溫하다(心, 肝). 그러므로 燥한 사람은 燥가 본이 되고 그 性은 寒冷하다. 만약 燥에 熱을 끼게 되면 病이 되므로 더운 것을 서늘하게 해주면서 潤하게 하는 腎氣丸, 六味에 知母 黃柏 등을 加減하여 응용한다. 濕한 사람은 濕이 본이 되고 그 性은 溫하다. 만약 濕에 寒冷을 끼면 病이 되므로 차가워진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祛濕시키는 人參養胃湯, 平胃散加減하여 응용한다.

(4) 表裏論의인 관점(寒熱)<sup>133)</sup>

表裏論은 四肢와 몸통(軀)과의 상관관계다. 經絡은 기혈운행의 통로로 奇經八脈은 任督脈을 중심으로 體幹의 氣血循環을 주

관하고, 12經脈은 手足의 氣血循環을 주관한다. 形象醫學에서는 手足이 발달하면 12경맥 위주로 운행하며 陽盛陰虛한 사람으로 본다. 몸통이 발달한 사람은 奇經八脈인 任督脈 위주로 운행하며 陰盛陽虛한 사람이다. 陽盛陰虛한 사람은 遠心力이 강하므로 피부병도 몸통보다는 四肢에 더 많이 나타난다. 中氣(몸통의 기운)가 弱해지기 쉬우므로 補中益氣湯으로 中氣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응용한다. 陰盛陽虛한 사람은 求心力이 강하여 積滯되거나 鬱滯되기 쉽고, 몸통에 피부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 쉽다. 積熱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防風通聖散加減方을 응용한다. 表裏論은 風寒 暑濕燥火 六氣에 해당하므로 寒熱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六氣는 인체의 皮膚 즉 十二經脈을 통해서 人體의 寒熱과 氣循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生理, 病理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風寒 暑濕燥火를 감별해야 되는데, 六氣는 寒熱의 偏重에 의해서 각각 발생되므로 피부병을 치료할 때 燥濕보다는 寒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寒熱의 변화에 따라서 燥濕의 變化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表裏論은 寒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陽盛陰虛와 陰盛陽虛로 구분하여 治療에 응용한다.

3) 精氣神血科에 따른 치료

精科의 피부병은 주로 精不足이나 氣不足으로 오니 補精과 補氣하는 固真飲子, 六味地黃丸 類를 쓴다. 氣科의 피부병은 주로 氣鬱로 오니 香蘇散 類를 쓴다. 神科의 피부병은 주로 火나 痰火, 陰血不足으로 오니 黃連解毒湯, 二陳湯, 滋陰降火湯 類를 쓴다. 血科의 피부병은 주로는 血虛發熱이나 氣不足으로 오니 四物湯 加 浮萍草 黃芩, 益胃升陽湯 類를 쓴다.

4) 臟腑形象에 따른 치료

五臟六腑는 기능상 皮肉脈筋骨을 주관하는데 이들은 상호 인접하여 있으므로 骨에서의 熱도 결국은 피부로 나오고, 肉에서의 熱도 피부로 나와서 피부병을 일으키므로 본래 어느 장기로부터 발생한 熱인지를 찾아야만 근본 치료가 된다. 五臟六腑는 耳目口鼻의 大小나 面色, 七情 등으로 臟腑의 虛實寒熱을 구분하여 用藥한다. 五臟으로 보면 面靑하거나 눈의 大小가 있으면 肝의 虛實로 보고 補肝丸, 當歸龍薈丸 등을 쓴다. 예를 들면 눈이 충혈되는 것은 주로 肝風熱이니 洗肝明目湯을 쓴다. 面赤하면 心の 虛實로 보고 醒心散, 瀉心湯, 導赤散, 十味導赤散 등을 쓴다. 面黃하거나 입의 大小가 있으면 脾의 虛實로 보고 補脾湯, 瀉黃散을 쓴다. 面白하거나 코의 大小가 있으면 肺의 虛實로 보고 補肺散, 瀉白散을 쓴다. 面黑하거나 귀의 大小가 있으면 腎水不足으로 六味地黃丸, 八味丸(面赤黑), 滋陰降火湯 등을 쓴다. 六腑로 보면 입이 크면 脾胃病으로 補脾湯, 平胃散 등을 쓴다. 코가 길면 大腸虛로 보고 實腸散, 補中益氣湯 등을 쓴다. 人中이 짧으면 小腸熱이니 導赤散, 赤茯苓湯을 쓴다. 眼臥가 부풀면 膽虛로 仁熟散을 쓴다. 鼻孔이 보이면 膀胱瀉泄로 加減八味湯, 五苓散 등을 쓴다.

5) 六經形에 따른 치료<sup>134)</sup>

六經形은 氣血의 운행적인 측면으로 분류한 것이다. 運行的인 측면에서의 氣血은 飲食과 攝生으로서 이루어지고 變化된다. 즉 飲食과 攝生에 의해서 多氣少血, 少氣多血, 多氣多血 등 氣血

132) 前後論적 관점과 표리론적 관점에서의 寒熱燥濕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前後論의 寒熱燥濕은 寒燥, 濕熱이지만, 表裏論의 寒熱燥濕은 寒濕, 燥熱이다. 각각의 나타나는 증상도 차이가 있는데, 表裏論은 寒熱의 氣流의 變化에 의한 升降運動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증상이 人體의 上下全身에(軀) 나타나거나, 手足에 나타난다. 그래서 表裏論은 몸통과 수족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陽盛陰虛, 陰盛陽虛로 구분한다. 즉 陰盛陽虛의 경우에는 몸에 증상이 심하고, 陽盛陰虛한 사람은 手足에 더 짙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33) 표리론에서 寒熱이란 六氣의인 寒熱로서 燥濕論에서의 寒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六氣는 하늘의 기(天氣)가 濕하고 燥한 것을 의미하고, 燥濕論에서의 燥濕은 땅(地氣)에서의 燥하고 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六氣(천기)에서의 燥는 陽明燥金으로서 寒熱로 구분할 하면 熱에 屬하며, 濕은 太陰濕土로서 寒에 屬한다. 반대로 地氣에서의 燥濕은 燥는 寒에 屬하고, 濕은 熱에 屬한다.

134) 양상완 · 박정현,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에서 요약한 것임.

의 다소가 나타나게 되며<sup>135)</sup>, 形象論에서는 氣血의 多少를 눈과 코의 升降으로 판단한다. 太陽과 厥陰은 차고 虛해지기 쉽기 때문에 虛寒한 기운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1) 少氣多血

太陽과 厥陰은 少氣多血하니 上昇력이 약하고 차가우며(少氣), 沈藏力은 강하다(多血). 太陽은 少氣하니 상승력이 약해 얼굴이나 상체에 많이 나타나며 차가우면 더욱 심해지므로 補氣, 升陽시키는 四君子湯, 六君子湯加味方을 사용할 수 있다. 또 多血하므로 아래에 정체되어 下體에 가려움증이 심하며, 차가우면 더욱 가렵고 밤에 더욱더 가렵다고 하므로 血寒을 없애는 小建中湯, 建理湯을 응용한다. 또 四肢 厥冷이 있으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아토피성피부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厥陰에 속하며 理中湯을 응용한다.

(2) 多氣少血

少陽과 少陰, 太陰은 多氣少血한다. 多氣少血는 上昇力은 많고(多氣), 沈藏力은 작다(少血). 또한 六氣의인 측면에서는 少陽은 相火, 太陰은 濕土, 少陰은 君火를 말한다. 相火란 잘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가렵고 빠르다. 少陽의 경우에는 收斂시키는 下降 기운이 약하거나, 三焦의 운행이 저해되어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쉬우니 三焦의 運行을 순조롭게 하여야 한다. 피부병이 이마, 얼굴의 중앙, 下顎에 나타나면 三焦의 運行이 저해되는 것으로서 上焦는 回春涼膈散, 中焦는 承氣湯·四順清涼飲, 下焦는 五苓散·八正散 등을 응용한다. 三焦의 통용방으로 木香檳榔丸을 응용한다. 少陰의 경우는 水가 부족해서 火가 盛하므로 腎水를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병이 가슴부위에 많이 나타나는데, 滋腎하는 六味地黃元加減方을 활용하고, 火가 盛하여 虛煩이나 痰熱이 있으면 竹葉石苻湯·柴梗半夏湯 등을 응용한다. 太陰은 本이 濕土에 속한다. 濕은 粘着性이 강하여 融合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熱(多氣)과 쉽게 결합하여 濕熱의 형태로 나타난다. 濕熱이 病理的으로 작용하면 피부에 진물이 나고 혹은 심해지면 化膿이 된다. 나타나는 부위는 面部, 腹部, 手足關節, 목(頸項), 耳目口鼻 주위 등에 진물이 난다. 太陰은 濕과 熱이 病理的인 요인이므로 清熱利濕하는 加味不換金正氣散, 當歸拈痛湯, 清熱瀉濕湯 등을 응용한다.

(3) 多氣多血

多氣多血이란 氣와 血이 모두 盛하여 치우침이 적은 것인데 아토피성피부염의 증상도 氣分과 血分에 고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氣分과 血分의 病理를 파악해야 되며, 陽明胃가 實하니 과도한 食積으로 인한 食積과 內傷의 증상도 나타난다. 氣分에는 小柴胡湯加減方, 血分에는 四物湯加減方, 氣分과 血分이 동시에 나타나면 四物湯 合 小柴胡湯, 防風通聖散 등을 응용하고, 食積·瘀血·內傷은 증상이 夜間에 심해지는 경향을 띄는데 治法은 平胃散加減方, 犀角地黃湯加減方을 응용한다. 陽明形은 胃經

이 實하여 面이 넓고 眼瞼이 두툼하고 입술, 유방, 魚際, 복부 등도 발달하였는데, 升麻葛根湯·防風通聖散을 기본으로 하고 口渴이 심하면 白虎湯을 쓴다. 또 陽明形은 胃熱로 土水克하여 腎精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延年益壽不老丹을 투여한다.

5. 皮膚病의 임상사례

세운한의원, 아카데미한의원, 홍제한의원, 지산한의원, 서봉한의원에서 임상한 사례를 통하여 피부병의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一般的 治療

(1) 증상특징

① 癢癢 <치험례>

정○○ 여자 57歲 (2001年 6月 16日 지산한의원)

【形色】 입이 발달, 氣科

【脈】 90 / 86

【既往歷】 94년도 맹장 수술, 12지장궤양 병력

【症】 4월 20일경 귀가 가렵고 얼굴에 피부병이 발생, 전신이 허물처럼 일어나고 물이 닿으면 부른다. 밤에 더 가렵다. 4월 20일부터 양약을 복용하면서 허물이 벗겨짐.

【治療 및 經過】 四物湯 加 浮萍草 黃芩, 甘豆湯

2001年 6月 16日 상기 처방과 甘豆湯을 각 10일분씩 투여. 다음 내원시 물집이 많이 줄어들어 본인도 좋아함. 계속 같은 처방을 투여.

【考察】 이 환자는 부풀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血에 濕을 제거하기 위해 四物湯에 浮萍草 黃芩을 가하여 투여하였다.

② 小兒內傷斑疹 <치험례>

나○○ 男子 4歲 (2001年 8月 25日 아카데미한의원)

【症】 100일 때부터 두드러기가 시작하여 겨울에는 손발이 통통 붓는다. 요즘에는 다리와 엉덩이 부위까지 발생한다. 찬물에 오래 있으면 두드러기가 발생한다. 계란이나 우유를 먹으면 심하게 발생한다. 배가 자주 아프고 땀이 많다.

【治療 및 經過】 黃芪建中湯<sup>136)</sup>

腹痛이 자주 있으며 땀이 많다고 하여 黃芪建中湯을 投與하였다. 이 患者는 10貼을 服用하고 나서 배가 아픈 것이 거의 없어지고, 땀이 줄며 두드러기 나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sup>137)</sup>

【考察】 小兒의 腹痛은 虛弱이나 食積으로 인한 것이 많다. 虛寒腹痛은 大便과는 관계없이 수시로 아프다. 小建中湯은 虛弱과 寒으로 인한 腹痛의 대표적인 처방이다. 氣虛自汗을 검했을 때 黃芪를 가하여 黃芪建中湯을 쓴다. 黃芪建中湯은 外感氣虛自汗의 神劑<sup>138)</sup>로 內傷發斑<sup>139)</sup>에도 쓴다.

③ 內傷發斑 <치험례>

박○○ 남자 11세 (1998年 11月 21日 세운한의원)

13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88 治虛勞氣虛自汗本方加黃芪蜜炒一錢名曰黃芪建中湯

137) 조성태, 김중욱 2002 형상의학회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 2

138)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260 仲景桂枝湯, 治外感風邪自汗之聖藥也. 治外感氣虛自汗之神劑也. 補中益氣湯, 治內傷氣虛自汗之妙方也.

139) 上揭書, p. 731 內傷發斑輕如蚊跡疹子者多在手足初起無頭痛身熱宜調中益氣湯黃芪建中湯

135) 形象論에서 코를 氣로, 입을 血로 간주한다. 그래서 코가 큰사람은 氣, 입이 큰사람은 血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러한 氣와 血은 모두 飲食을 통해서 생성된다. 입이 커서 잘 먹는다고 다 血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입이 크지만 마른 筋骨形의 瘦人이 있는 반면에 입이 작아도 肌肉形의 肥人이 있다. 그래서 잘 먹는다고 모두 血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잘 먹어서 氣를 생산하는 것이다.

【形色】 입, 코가 크다. 얼굴색이 얼룩덜룩하다.

【症】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난다. 반진이 있다. 배가 아프다. 손바닥에 땀이 많다.

【治療 및 經過】 益胃升陽湯

98년 1월 16일 益胃升陽湯 1제

【考察】 이 환자는 手掌에서 땀이 나고 배가 아프므로 內傷氣虛에 食傷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補氣하면서 食傷을 치료해야 하니 益胃升陽湯을 활용한 것이다.

④ 內傷斑疹 <치험례>

한○○ 여자, 52세 (2000년 9월 15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 神科

【脈】 66 / 66, 64 / 54

【症】 28歲 때부터 팔다리로 뻘루지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시작, 차츰 번지기 시작하여 몸이나 등에도 생겨, 밤이면 심하게 가렵다. 大便에 끈이 낀다. 저녁 8시~아침 6시까지 일을 한다.

【治療 및 經過】 調中益氣湯

上記의 患者는 한 劑를 服用하니 가려움이 사라지고 大便의 끈이 끼는 症狀도 많이 好轉되어 3劑를 더 服用하고 治療를 마쳤다.<sup>140)</sup>

【考察】 大便에 끈이 끼는 것은 內傷으로 생기는 症狀이므로 內傷發斑으로 판단하고 調中益氣湯을 투여하였다.

⑤ 紫斑 <치험례>

홍○○ 여자 24歲 (1992년 세운한의원)

【形色】 血科, 瘦人이며 陽盛陰虛의 體形을 가졌다. 面黃, 面無澤

【脈】 76 / 76

【症】 手足에 멍같이 반점이 나타났으며 瘙癢症은 手足의 접히는 關節內側에 주로 발생하였다. 膿이 많이 튀어나오고 항상 出血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야간에 瘙癢症이 심하여 이런 狀態가 5年程度 되었다고 한다. 여름에도 반 팔 옷을 못 입고 긴 팔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한다. 평소 소화불량과 오심 구역이 심하여 식사를 잘 못하는 상태이다.

【治療 및 經過】 十全大補湯

1992년 봄에 來院하여 診察한 결과 氣虛로 인한 血病으로 판명되어 十全大補湯을 투약하여 두터워졌던 皮膚가 얇어지고 瘙癢症이 많이 감소되었다. 그 후 10餘劑를 投藥하여 치료되었다.

【考察】 상기 환자는 面色이 潤氣가 없고 脫氣된 상태로 氣虛로 인하여 血의 病症이 나타나는 것으로 멍같이 斑点이 나타나는 것은 血이 運行되지 못하여 정체되어서 오는 것이지 紫斑症과 같은 熱證이 아니다.

⑥ <치험례>

손○○ 남자 3세 (1994년 3월 10일 세운한의원)

【形色】 陽明

【症】 전신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고 접히는 곳이 심하다. 봄에 피부병이 더하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효과

없어 일본까지 치료하러 갔다 왔음.

【治療 및 經過】 升麻葛根湯加 荊芥 防風 牛蒡子 각 1돈

94년 3월 10일 위의 처방을 한 제 쓰고 많이 호전되어 지속적으로 투여. 96년 9월 13일 내원하여 그동안 피부가 괜찮았으나 요즘은 약간 나타나서 다시 升麻葛根湯 加味方 2제 투여. 96년 12월 5일에도 같은 처방을 한 제 투여. 98년 1월 17일 升麻葛根湯 1제 투여.

【考察】 봄이 되면 발생하므로 溫疫에 두루 쓰는 升麻葛根湯을 투여.

⑦ 癩疹 <치험례3>

이○○ 남자, 29세 (1998년 12월 12일 세운한의원)

【形色】 眉美麗, 眼鏡, 膀胱體, 口 爲主

【脈】 68 / 68

【症】 머리카락 하나만 닿아도 가렵다. 皮膚에 흰 것과 붉은 반점이 혼합되어있고 감기에 잘 걸린다. 中學校 때 사타구니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슴 얼굴위로 올라왔다. 밤낮으로 가려워 4일에 한번씩 洋藥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考察】 흰 것과 붉은 것이 혼합되어있다는 것은 腠理가 막혀서 皮膚呼吸이 안 된다는 뜻이다.<sup>141)</sup> 清肌散<sup>142)</sup>으로 皮膚呼吸을 우선 시켜야 한다.<sup>143)</sup>

⑧ 白駮 <치험례>

정○○ 남자 6歲 (1999년 4월 23일 세운한의원)

【脈】 109 / 100

【症】 좌측 목과 어깨에 백철

【治療 및 經過】 益胃升陽湯

1999년 4월 23일 益胃升陽湯 1제 투여

【考察】 益胃升陽湯은 補中益氣湯의 변방으로 氣虛한데다 食積으로 생긴 熱을 없애는 처방이다. 白駮은 熱로 인해서 皮膚의 津液이 없어져서 생긴 것이다.

⑨ 天庖瘡 <치험례>

김○○ 남자, 34세 (1999년 4월 30일 세운한의원)

【形色】 얼굴 紫赤色, 膀胱體

【脈】 92 / 90, 100 / 99

【症】 얼굴이 자적색으로 變하고 온 몸이 가려우며 머리에 비듬 발뒤꿈치 갈라진다. 온몸에 꽃이 피듯이 나타나는 데 등과 종아리 부위가 심하다. 12년 전부터 시작, 겨울에 심하다

【治療 및 經過】 防風通聖散 去 麻黃, 防風通聖散 去 大黃 芒硝 加減通聖丸<sup>144)</sup>

防風通聖散 去 麻黃과 防風通聖散 去 大黃 芒硝 각 1제를 간복시켜 內毒과 外毒을 除去하니 皮膚에 꽃이 피듯

140)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14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727 凡十二經絡者皮之部也 黃赤則爲熱 多白則寒 五色皆見則寒熱也

142) 上揭書, p. 732 治癩疹或赤或白癩瘡荊防敗毒散(方見寒門)加天麻薄荷蟬殼入生薑三片水煎服(得效)

143)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4

144)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469 治同上即前方共半斤再加苦參半斤右爲末酒糊或蜜和丸梧子大酒飲任下七十丸(入門)

이 낫던 것이 줄어들고 好轉反應이 뚜렷하여 加減通聖丸  
으로 長服시켰다.

【考察】증상이 매화꽃처럼 생겼으므로 楊梅瘡이다. 치료는  
우선 內毒을 제거하기 위해서 防風通聖散에서 麻黃을 빼  
서 쓰고 外毒을 제거하기 위해서 防風通聖散에 大黃 芒  
硝를 빼서 發汗시킨 다음 마무리 藥으로 苦蔘이 主劑가  
된 加減通聖丸을 투여한다.

⑩ 疔瘻 <치험례>

최○○ 여자, 37세 (1997년 12월 12일 세운한의원)

【形】血科

【脈】68 / 68

【症】좌측 유방에 혈관종이 생겨 출혈이 멈추지 않음. 출산후  
팔알처럼 커져서 만져 터트린 후 발생.(출산 5개월 되었음)

【治療 및 經過】十全大補湯 加 金銀花 穿山甲 皂角子, 托裏  
消毒飲

1997년 12월 12일 十全大補湯 加味方을 2제 투여. 98년 1  
월 31일 내원. 출혈은 멈추었음. 托裏消毒飲 10일 분 투  
여. 2월 20일, 3월 14일 계속 托裏消毒飲 투여.

【考察】이 환자는 疔瘻로 인하여 출혈이 멎지 않은 것으로 내  
부의 膿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⑪ 疔瘻 <치험례>

정○○ 여자, 53세 (1998년 7월 31일 세운한의원)

【脈】76 / 80

【症】95년 구강암 수술. 肩臂痛과 脇下痛이 있고, 찬물을 끼  
없는 느낌이 나며 潮熱이 있다.

【治療】人蔘養榮湯加 知母 黃柏

【考察】이 환자는 疔瘻로 인하여 潮熱이 발생한 것인데 虛  
勞症이 있으므로 이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實證이  
면 回春涼膈散을 쓸 수 있음.

⑫ 疥癬(지루성) <치험례>

김○○ 여자 15歲 (1998년 5월 30일 세운한의원)

【脈】76 / 80

【症】전신이 가렵고 진물이 난다.

【治療 및 經過】升麻葛根湯 加 牛蒡子 荊芥 防風, 涼血飲

1998년 5월 30일 升麻葛根湯 加味方과 涼血飲 1제를 각각  
투여하였다.

【考察】涼血飲은 血熱로 인하여 瘡이 생긴데 쓴다.

⑬ 疥癬(濕疥 지루성) <치험례>

임○○ 남자 14세 (2000년 11월 18일 세운한의원)

【形色】肥人, 赤

【脈】數, 大腸에 걸려 膀胱에 떨어짐

【症】평소 過食을 하고 腹脹이 있으며 大便이 묽은 편이었다.  
피부는 전신에 瘡의 양상을 띠고 手足에 심하게 나타나다.

【治療 및 經過】加味不換金正氣散<sup>145)</sup>

2000년 11월 18일 加味不換金正氣散 1제 투여. 12월 9일  
재진. 大便이 조금 좋아졌고, 피부도 진물이 조금 개선되

었음. 12월 26일. 瘡의 症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 계  
속 같은 약을 투여함.

【考察】加味不換金正氣散은 粘着성이 강하여 응집되는 濕  
證에 쓴다.

⑭ 疥癬(膿疥) <치험례>

최○○ 여자 29歲 (1998년 5월 30일 세운한의원)

【脈】84 / 76

【既往歷】4개월 전 제왕절개 수술

【症】피부가 가렵고 전신에서 膿汁이 나온다. 발톱이 죽었  
다. 소화가 안 되고 감기몸살 기운이 항상 있다.

【治療 및 經過】平血飲, 加味不換金正氣散

1998년 5월 30일 平血飲을 투여하고, 6월 17일에 加味不  
換金正氣散을 투여하였다.

【考察】平血飲은 升麻葛根湯의 변방으로 피고름이 나오면  
서 아프고 가려운데 효과가 있다.

⑮ 疥癬(魚鱗癬) <치험례>

윤○○ 남자, 22세 (2001년 7월 21일 지산한의원)

【形色】瘦人, 피부가 그을린 듯 하면서 비늘같이 일어남.

【症】어려서 胎熱이 점차 魚鱗癬으로 변하고 체중도 감소.

【治療 및 經過】十全大補湯, 六味地黃丸

7월 21일 十全大補湯 20일분 투여. 9월 15일 내원 피부가  
많이 호전되어서 다시 十全大補湯 20일분 투여. 2002년 1  
월 12일 내원, 魚鱗癬은 거의 없어졌으나 가려움. 六味地  
黃丸에서 山藥을 君藥으로 투여.

【考察】이 환자는 피부병이 오래되었으므로 일단 榮衛運行  
을 시키기 위해서 十全大補湯을 투여하였다. 만약 陽明  
形이면 防風通聖散을 투여할 수 있다.

⑯ 疥癬(牛癬) <치험례>

이○○ 남자, 14세 (1998년 7월 18일 세운한의원)

【形色】키가 크고 마른다.

【脈】88 / 84

【症】초등학교 4년부터 피부소양증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피부가 소가죽처럼 되고 가렵고 잠도 잘 안 온다. 손톱도  
마른다.

【治療 및 經過】防風通聖散, 瓊玉膏

7월 18일 防風通聖散 10일분 투여. 약간 가려움이 감소.  
8월 1일 다시 防風通聖散 10일분 투여. 그 뒤 通聖散과  
瓊玉膏를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가려움과 피  
부의 경화가 감소되었음.

【考察】피부병은 내부의 熱로 精血이 고갈되거나 精血 자체  
의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防風通聖散으로 風熱을 제거하  
고 瓊玉膏로 精血不足을 보충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2) 발생부위

① 癩頭瘡 <치험례>

김○○ 男子 33歲 (2002년 6월 17일 흥제한의원)

【形色】눈썹이 진하다. 아랫입술이 부었다.

【脈】72 / 74

【症】머리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頭痛, 項強, 嘈雜이 있다.

145)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  
의학적 考察, p. 11

땀이 많다.

【治療 및 經過】酒歸飲<sup>146)</sup>

2002년 6월 17일 酒歸飲을 10일분 투여함. 7월9일 내원, 많이 호전하여 다시 10일분 투여. 8월6일 10일분 투여. 11월 22일 내원. 거의 나아는데 간혹 飲酒 뒤 나타난다함.

【考察】癩頭瘡에는 주로 酒歸飲이나 防風通聖散을 활용한다.

② 얼굴기미 <치험례>

김○○ 여자 36歲 (2001년3월 3일 지산한의원)

【形色】面黃, 手掌黃, 입술이 脫色.

【脈】98 / 96

【既往歷】제왕절개 병력

【症】기미가 심하다. 밥맛이 없다. 태양혈의 두통. 견비통, 요통, 수족이 차고 저리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열이 오른다. 잠이 깊어 안 온다. 생리주기와 양이 불규칙하고 생리량이 많으면 어지럽다.

【治療 및 經過】逍遙散<sup>147)</sup>

2001년3월 3일 產後 雜證으로 보고 逍遙散 1제 투여.

【考察】얼굴의 기미는 胃腸病이나 產後病으로 많이 온다. 기본적으로 逍遙散을 투여한다.

③ 얼굴기미 <치험례>

정○○ 여자 36歲 (1998년7월 20일 흥제한의원)

【形色】마르고 키가 작다. 面黃. 입이 크다.

【脈】74 / 76

【症】관골 주위에 기미가 심하다. 월경 때 乳房痛, 밤에 팔다리가 쑤신다. 便秘,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治療 및 經過】濟陰丹<sup>148)</sup>

1998년7월 20일 濟陰丹 1개월분 투여. 8월 31일 내원 기미가 많이 벗겨짐. 11월 17일 다시 1개월분 투여 후 기미와 월경통이 모두 없어짐.

【考察】월경 때 乳房痛은 자궁병이나 얼굴의 기미도 子宮의 이상으로 온 것으로 판단한다.

④ 面熱 <치험례>

이○○ 여자 32세 (1996년 2월 24일 세운한의원)

【色】面赤

【脈】83 / 79

【症】얼굴이 당기고 껍질이 벗겨진다. 뺨루지가 생긴다. 얼굴이 붉어지고 熱이 난다. 입 주위에 무엇이 먼저 난다.

【治療 및 經過】升麻黃連湯<sup>149)</sup>

上記 患者는 1劑를 服用하면서부터 얼굴에 熱이 나고 가려우며 껍질이 벗겨지는 症狀이 좋아졌다.<sup>150)</sup>

【考察】面病은 胃에 속하고 面熱은 胃熱이나 升麻黃連湯을 투여한 것이다.

⑤ 面熱 <치험례>

박○○ 남자 38세 (1996년 6월 29일 세운한의원)

【色】面赤

【脈】78 / 78

【症】몇 년 전부터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다. 연고를 바른 후 부터 시작되었다. 더위와 여름에 햇빛을 쬐면 심해진다.

【治療】加味羌活散<sup>151)</sup>

【考察】햇빛 받는 곳에 皮膚病이 생긴다는 것은 熱이 있되 濕을 排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름에 심하다는 것은 心旺腎衰하므로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sup>152)</sup>

⑥ 얼굴 소양감 <치험례>

송○○ 女子 35세 (1999년 10월 8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火性, 面赤

【脈】84 / 84, 90 / 86

【症】20대 초에 熱病이 난 이후로 顴骨 부위에서 뺨에 걸쳐 붉고 두드러기처럼 넓게 일어남. 혀가 갈라지고 입이 마른다. 눈이 자주 충혈이 된다. 마음이 항상 불안 초조하다. 성격이 급하다. 생리가 검고 덩어리를 이룬다. 심하게 허기를 느낀다.

【治療 및 經過】黃連湯(口舌)<sup>153)</sup>, 洗肝明目湯<sup>154)</sup>

처음에는 火性を 위주로 보고 黃連湯을 투여하여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증상은 好轉되었으나 皮膚 狀態는 별 개선 안됨. 눈이 充血된 것은 主안점으로 洗肝明目湯을 4개월동안 계속 투여하여 얼굴의 皮膚異常은 완전히 개선되었다.<sup>155)</sup>

【考察】얼굴의 병은 痰火病, 風熱病, 胃病, 子宮病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肝風熱로 보고 洗肝明目湯을 투여한 것이다.

⑦ 臉生風粟 <치험례>

권○○ 女子 20歲 (2001년 8월 24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臃腫, 가름

【脈】92 / 92

【症】겨울이면 얼굴에 마른버짐이 생긴다. 便秘 경향이고

14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495 治頭瘡酒當歸白朮各一錢半酒芍藥川芎陳皮各一錢酒天麻蒼朮各七分半酒黃柏酒甘草各四分防風三分右剉作一貼水煎日三服服後穩睡片時

147)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644 治月經不調及血虛五心煩熱寒熱如癘白芍藥白茯苓柴胡當歸麥門冬各一錢甘草薄荷各半錢剉作一貼入薑三片水煎服(入門).

148)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588 治婦人久冷無子及數經墮胎皆因衝任虛損胞內宿挾疾病經候不調或崩漏帶下三十六疾皆令孕育不成以至絕嗣亦治產後百病令人有孕及生子充實無病蒼朮八兩香附子熟地黃澤蘭各四兩人參桔梗麥冬石斛黨參本秦凡甘草各二兩當歸桂心 乾薑細辛牡丹皮川芎各一兩半木香白茯苓京墨燒桃仁各一兩川椒山藥各七錢半糯米炒一升大豆黃卷炒半升爲末煉蜜和勻兩作六丸每一丸細嚼溫酒或醋湯送下.

149)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512 治面熱升麻乾葛各一錢白芷七分白芍藥甘草各五分黃連酒炒四分犀角屑川芎荊芥穗薄荷各三分右剉先用水半盞浸

川芎荊芥薄荷外都作一貼水二盞煎至一盞入浸三味再煎至七分去滓食後溫服忌酒麪五辛

150)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1

15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732 治癰瘡瘻瘻羌活前胡各一錢二分人參桔梗枳殼川芎天麻赤茯苓甘草各七分蟬殼薄荷各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水煎服

15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p. 94.

153)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606 治心火舌上生瘡或舌上腫爛裂或舌尖出血或舌硬黃連酒炒梔子炒生地黃酒洗麥門冬當歸酒洗赤芍藥各一錢犀角薄荷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水煎食後服

154) 上揭書, p. 544 治一切風熱眼目赤腫疼痛當歸尾川芎赤芍藥生地黃黃連黃芩梔子石膏連翹防風荊芥薄荷羌活蔓荊子菊花白茯苓藜蘆決明桔梗甘草各五分右剉水煎食後服

155) 조성태, 2001년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12, 13

가슴이 답답하다. 5세 때부터 눈꺼풀의 안 쪽에 좁쌀 같은 것이 생겨 눈을 뜨고 감기가 불편하여 모 병원에서 20여 차례의 수술을 반복.

【治療 및 經過】消毒飲<sup>156)</sup>

이 환자는 약을 복용하고 大便을 시원하게 보기 시작하더니 왼쪽 윗눈꺼풀 안쪽으로 생겼던 것이 없어지며 피부병도 호전되었다.<sup>157)</sup>

【考察】이는 臉生風粟<sup>158)</sup>으로 肝에 瘀血로 생기는 것이니 消毒飲을 투여한 것이다.

⑧ 배꼽 瘡瘍 <치험례>

최○○ 여자 33歲 (2001年 3月 24日 지산한의원)

【形】太陽形

【脈】72 / 68

【既往歷】제왕절개 2회

【症】두드러기가 발생하고 배꼽에 진물이 나며 가렵다. 양쪽 귀에 진물이 난다. 헛배가 부르다. 손이 차다. 주위를 잘 탄다. 항상 피곤하다.

【治療 및 經過】黃連平胃散<sup>159)</sup>

2001年3月 24日 黃連平胃散 1제 투여

【考察】腸癰에 해당되므로 黃連平胃散을 투여한 경우다.

⑨ 下疳瘡 <치험례>

김○○ 여자 63歲 (1998年 5月 29日 세운한의원)

【脈】90 / 110

【既往歷】96년 자궁암수술

【症】3개월 전부터 하혈을 계속함. 집에서 썩은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옴

【治療 및 經過】消疳敗毒散, 解毒丹

1998年 5月 29日 위의 처방 10일분 투여.

【考察】下疳瘡에 해당하므로 消疳敗毒散을 투여함.

⑩ 손바닥 乾燥 <치험례>

이○○ 여자 44歲 (1998年 5月 15日 세운한의원)

【脈】74 / 74

【症】손바닥이 건조하다.

【治療 및 經過】生血潤膚飲

1998年 5月 10日 生血潤膚飲을 투여.

【考察】生血潤膚飲은 瘀血로 인해서 생긴 燥證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⑪ 手足發斑 <치험례>

길○○ 女子 27세 (2000년 5월 23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입이 야무지지 못하다.

【脈】64 / 66, 72 / 68

【症】팔다리로 皮膚에 모기에 물린 것처럼 생긴 것이 나오면서 굵기도 하고 가려우면서 全身에 퍼져 있다. 대변에

곱이 있고 痰飲 形象 症狀이 있다.

【治療 및 經過】二陳湯 加 蒼朮 白朮 川芎 山楂 各一錢

이 환자는 二陳湯 加味方 2劑를 복용하고 팔다리의 피부가 좋아지고 大便의 곱이 줄어들었다.<sup>160)</sup>

【考察】痰飲의 形象이 있으므로 痰熱에 의한 內傷發斑으로 보고 二陳湯에 蒼朮 白朮 川芎 山楂<sup>161)</sup>를 加해서 썼다.

⑫ 사타구니 下肢瘡癢 <치험례>

최○○ 男子 58歲 (2001年 9月 4日 아카데미한의원)

【形色】陽明形, 骨大

【脈】72 / 76

【症】언제부터인가 사타구니로 땀이 차며 가려워지더니 97년부터 허벅지 엉덩이 아랫배로 붉게 두드러기처럼 돌아나면서 가려웠다. 초기에는 붉은 색의 조그마한 것이 솟아나 옆의 것과 이어지면서 커져 모 병원 진찰을 받아보니 장미비강진이라고 진단받았다. 전부터 肛門部位 가려워서 약 복용. 전에는 입이 잘 열고 生殖器 주위에 물집이 잘 생겼다.

【治療 및 經過】活血驅風散<sup>162)</sup>

活血驅風散 20貼을 투여하였는데 약을 복용하는 중에 皮膚에 나왔던 것은 들어가고 더 이상 새로 나오지 않았으며 脈도 68/64로 변화가 뚜렷하였다. 그래서 다시 20貼을 더 투여하였다<sup>163)</sup>.

【考察】발생하는 부위로 봤을 때 腎臟風瘡이므로 活血驅風散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⑬ 下肢瘡癢 <치험례>

하○○ 여자 10세 (1998년 12월 4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臍體, 黑

【症】下體의 皮膚만 심하다. 밤이면 너무너무 가렵다고 한다. 便秘가 심하다. 손발이 차다.

【治療】芎歸湯

【考察】上體는 氣血에 속하고 下體는 血氣에 속한다.<sup>164)</sup> 血氣이 나쁘다는 것은 十二經脈이 나빠서 피부호흡이 안되며 大小便의 배설이 나쁜 것이다.<sup>165)</sup> 芎歸湯을 써서 血氣을 돈구어주면 된다.

(3) 발생시기

① 春 <치험례>

강○○ 여자 17歲 (1998年 8月 7日 세운한의원)

【脈】72 / 70

【症】무릎 이하로 자반이 생긴다. 베체트씨 증후군으로 진단. 입안이 터지는데 겨울과 봄에 더 심해진다. 코가 붉어지는데 봄에 더 심하다.

【治療 및 經過】升麻葛根湯 加 牛蒡子 荊芥 防風, 紫金錠  
1998년 8월7日 상기처방들을 1제분 투여하였다. 8월 22

15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546 治臉生風粟大黃櫻荊芥穗各二錢惡實甘草各一錢右剉水煎服

157) 조성태, 김종욱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 9

158)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537 兩臉上下初生如粟米大漸大如米粒或赤或白不甚疼痛此肝寒瘀血所成宜服消毒飲

159) 알기쉬운 여찬의증급감, 피부과외과, p. 289

160)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16

16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43, 1188

162)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820

163) 조성태, 김종욱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 10

16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 79.

16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 153.

일과 9월 12일에 升麻葛根湯 1제를 다시 투여하였다.

【考察】 봄에 더 심해지니 溫毒으로 보고 升麻葛根湯을 투여한 것이다.

② 冬 <치험례>

구○○ 여자 8세 (2000년 10월 15일 세운한의원)

【形色】 瘦人, 陽盛陰虛, 蒼白

【脈】 滑, 小腸에 걸려 臍에 떨어짐.

【症】 四肢屈曲部位, 손목과 목 부위에 乾燥한 상태가 겨울철에 심함. 평소 식욕부진과 眩暈, 鼻塞(알러지성비염), 便秘가 있음.

【治療 및 經過】 補中益氣湯 季節方<sup>166)</sup>

2000년 10월 15일 補中益氣湯 季節方 투여. 11월 5일 재진. 眩暈과 피부상태가 호전됨. 12월 10일 재진. 피부 호전됨.

【考察】 계절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중기 부족이니 補中益氣湯을 활용한다.

③ 夜間 <치험례>

오○○ 여자 35세 (1999년 2월 12일 세운한의원)

【形色】 血科, 옆구리가 길다.

【脈】 80 / 80

【症】 皮膚 가려움과 다리가 太陽經을 따라 당기고 아픈 것이 밤에 더욱 심하다. 잘 때 손발이 뜨거워 찬물에 몇 번씩 담근다. 가끔 아랫배가 잡아 빼듯이 아프다. 月經量이 매우 많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治療 및 經過】 四物湯 加 知母 黃柏 黃連 梔子 柴胡 牡丹皮 각 1돈

이 환자는 2劑를 복용하면서 皮膚의 가려움이 개선되면서 아랫배 아픈 것,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잘 때 손발에서 熱이 나는 증상이 좋아졌다.

【考察】 이 환자는 瘀血이 자궁에 뭉쳐 있으므로 下腹이 아프고 머리로 상승하므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瘀血로 야간 熱에 나므로 피부병이 온 것으로 보아 四物湯에 知母 黃柏 梔子 柴胡 牡丹皮를 가해서 처방한 것이다.

(4) 수반증상

① 胃腸症狀 <치험례>

김○○ 여자 27歲 (1997년 8월 29일 세운한의원)

【形色】 氣科, 얼굴이 마치 火傷을 입은 것같이 검게 변함.

【脈】 緩脈, 76 / 72

【症】 10여년전부터 얼굴과 목, 四肢의 접히는 곳이 심하게 가렵고 점차 각질화 됨. 消化不良과 泄瀉가 있고 胸痞症이 오래되었다.

【治療 및 經過】 二陳湯 加 蒼朮 白朮 川芎 山查 各 一錢 消風散, 化痰清火湯, 散風苦蔘丸

1997년 8월 29일 우선 위장장애 치료를 위하여 二陳湯 加 蒼朮 白朮 川芎 山查 各 1돈 10일분 투여. 9월 20일 내원. 위장증상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피부질환은 별로 호전 안 됨. 야간에 피부 소양감이 심함. 消風散과 化痰清

火湯을 겸복시킴. 그 후 化痰清火湯 2劑와 散風苦蔘丸을 같이 服用한 후 두터워진 피부가 정상적으로 변해감.

【考察】 이 환자는 피부질환에 위장질환을 겸하였으므로 위장질환 치료를 우선하여야 한다. 주로 平胃散, 二陳湯 加 味方을 활용한다.

② 胸痞 <치험례>

정○○ 남자 43歲 (1998년 6월 27일 세운한의원)

【形】 陽明

【脈】 80 / 76

【既往歷】 39-40세 때 부스럼이 난 적이 있다.

【症】 피부가 가렵고 저리다. 몸이 더운 편이다. 식사를 너무 잘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治療 및 經過】 化痰清火湯

1998년 6월 27일 化痰清火湯 1제 투여.

【考察】 이 환자는 胃熱과 痰火로 인하여 식욕이 왕성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피부병과 麻木 증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化痰清火湯을 활용한 것이다.

③ 胃手術 <치험례>

서○○ 女子 25歲 (2001년 8월 13일 아카데미한의원)

【形】 臍體, 털이 많다.

【脈】 76 / 72

【症】 어릴 때부터 팔 다리 등에 검은 점이 생겼음. 평소 소화불량. 99년 십이지장궤양으로 胃2/3를 切除. 수술 후 사마귀와 같은 것이 자꾸 생김. 얼굴에 주근깨가 많음. 자궁에서 흑을 除去. 痰飲의 形象과 症狀이 있고 貧血이 심하다.

【治療 및 經過】 蔘苓白朮散<sup>167)</sup>

이 환자는 약을 복용하면서 사마귀와 같이 생겼던 것이 차츰 들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약을 지으러 왔을 때는 脈은 그대로였지만 皮膚에 나타난 이상은 1/3 정도만 남아 있었다.<sup>168)</sup>

【考察】 胃를 수술했으므로 脾胃에 직접 작용하는 약보다는 血을 돈구어서 形들을 바로잡아주는<sup>169)170)</sup> 蔘苓白朮散을 투여하였다. 인체의 臟腑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한 곳이 나빠지면 다른 곳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피부병도 피부만 보지 말고 다른 곳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야한다.

④ 月經痛 <치험례>

권○○ 여자 29歲 (2001년 3월 10일 지산한의원)

【形色】 氣科

【脈】 72 / 64

【既往歷】 月經痛

【症】 피부가 각질화. 손이 차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月

166)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 p. 10

167)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58 治內傷脾胃虛弱飲食不進或吐瀉凡大病後調助脾胃此藥極妙人參白朮白茯苓山藥甘草炙各三錢薏苡仁蓮肉桔梗白扁豆縮砂各一錢半右爲末每二錢煎湯點服○剉取一兩入葷三棗二水煎服亦可

168) 조성태, 김종욱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 10

16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 198

170) 上揭書 Ⅲ, p. 202

經痛이 있으며 월경주기는 28-32일.

【治療 및 經過】五積散<sup>171)</sup> 去 乾薑 加 牛膝 羌活 獨活 山楂 處方을 1제 투여.

【考察】寒하면 血이 응고되어 전신에 순행이 안되므로 피부가 血을 받지 못하므로 손이 차고 종아리에 쥐가 나며, 角質化가 생길 수 있다. 五積散은 氣, 血, 痰, 飲, 食이 寒으로 인하여 응체된 것을 푸는 처방으로 많이 활용한다.

⑤ 입술건조 <치험례>

박○○ 女子 25歲 (2001年 1月 15日 아카데미한의원)

【形】口突出, 臍體, 乳房小

【脈】84 / 74

【症】목 손목 손등 얼굴이 가려워 붉으며 심하면 진물이 난다. 머리에 비듬이 많다. 痰飲의 形象과 症狀. 冷帶下가 많다. 입술이 뜬다. 손발이 차다.

【治療 및 經過】溫經湯<sup>172)</sup>

衝任脈의 虛損으로 보고 溫經湯을 투여하였는데 재진 시에는 脈이 90/80으로 세 번째 진료 시에는 72/76으로 脈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皮膚의 이상이 개선되었다.<sup>173)</sup>

【考察】위 환자는 목과 손부위로 皮膚의 이상과 입술 건조와 冷帶下를 호소하였다. 자궁은 胞에 속하여 전신에 血을 영양하는 기능을 한다. 입술건조는 자궁병이므로 이로 인해 피부병이 온 것이니 溫經湯을 투여한 것이다

⑥ 자궁수술 <치험례>

최○○ 여자 50歲 (2002년 10월 29일 홍제한의원)

【形色】氣科, 코 좌측의 물혹.

【脈】120 / 120

【既往歷】83년 자궁암 수술

【症】전신 두드러기증상으로 가렵다. 3년 전 닭고기 먹고 나서 발병. 그 뒤 여름만 되면 발병. 요즘 골프하고 나서 피곤하다.

【治療 및 經過】益胃升陽湯, 解毒丹

10월 29일 益胃升陽湯 10일분과 解毒丹 5일분 투여하고 다음날 전화로 확인하니 약간 호전되었다고 함. 4일 뒤 확인하니 거의 소실되었음

【考察】이 환자는 脈은 높으나 實熱 증상은 없으므로 수술로 복부운동 기능이 약한데 과로로 더욱 약화되어서 虛熱로 피부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益胃升陽湯을 활용한 것이다

⑦ 자궁수술 <치험례>

안○○ 여자 43歲 (1998年 3月 13日 세운한의원)

【形色】관골 부위가 붉다.

【脈】80 / 76

【既往歷】25세에 자궁 제거 수술, 현훈으로 졸도

【症】좌측 협통이 있으면서 1월부터 피부가 가렵고 아프다. (帶狀疱疹) 좌측 耳鳴과 頭痛이 있다. 햇빛 알려지가 있다. 요통과 변비가 심하다.

【治療 및 經過】芎歸湯

1998年 3月 13日 芎歸湯 1제 투여

【考察】血氣를 도와 주어야하는 증상이므로 芎歸湯을 투여한 것이다.

⑧ 便秘 <치험례>

홍○○ 여자 5歲 (2003年 1月 13日 홍제한의원)

【形色】血科, 面黃

【症】하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목욕뒤에 더 심하다. 便秘가 심하다.

【治療 및 經過】芎歸湯

2003年 1月 13日 상기 처방을 10일분 투여. 2월 3일에 전화로 확인한 바 많이 호전되었고, 便秘도 개선되었다고 함.

【考察】음혈이 부족하면 변비뿐만 아니라 피부병도 온다. 이때의 기본방은 芎歸湯이며, 滋陰降火湯도 활용할 수 있다.

⑨ 耳鳴 <치험례>

김○○ 17歲 男子 (1998년 3월 7일 세운한의원)

【形色】太陽形, 身長, 瘦人 검붉은 색이며 여드름이 많다.

【脈】浮脈, 72 / 72

【症】얼굴에 여드름이 심하고 感氣에 걸리면 咽痛과 鼻塞의 증상이 나타난다. 近視로 안경을 착용한 상태. 耳鳴이 오래되었고 과거 中耳炎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治療 및 經過】蔓荊子散<sup>174)</sup>

耳鳴을 수반하여 蔓荊子散을 투여하였더니 耳鳴뿐만 아니라 얼굴의 여드름이 많이 없어져서 아이가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차후에 3月 23日, 7月 13日 各 1劑씩 투여하여 얼굴의 여드름과 耳鳴이 많이 치료되었다.<sup>175)</sup>

【考察】이 환자는 얼굴의 피부병에 耳鳴과 浮脈이 나타나므로 腎經의 風熱로 보고 蔓荊子散을 투여한 것이다.

⑩ 舌痛 <치험례>

임○○ 女子 9歲 (1999年 7月 20日 아카데미한의원)

【形色】입술이 얇은 火體, 眉美麗

【症】겨울이면 皮膚가 하얗게 일어나고 거칠거칠하다. 혀가 아프다. 陰部가 發赤하고 따끔따끔 아프다고 한다. 冷帶下가 있다

【治療 및 經過】十味導赤散<sup>176)</sup>

心, 小腸의 熱을 제거하는 十味導赤散 20貼을 투여하였는데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다.<sup>177)</sup>

17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017 治感傷風寒頭痛身疼四肢逆冷胸腹作痛嘔吐泄瀉或內傷生冷外感風冷並皆主之 杏朮二錢 麻黃陳皮各一錢 厚朴枳椇積殼當歸乾薑白芍藥白茯苓各八分 白芷川芎半以桂皮各七分 甘草六分 右剉作一貼入煎三片葱白三莖水煎服

172)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360 治月候不調寒門冬二錢 當歸一錢 半人參半 以製白芍藥川芎牡丹皮各一錢 阿膠珠甘草炙各七分 半吳茱萸肉桂各五分 右剉作一貼煎三片水煎服

173) 조성태, 김중욱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II, p. 7

174)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583 治腎經有風熱耳中熱痛出膿汁或鳴或聾 蔓荊子赤茯苓甘菊前胡生地黃麥門冬桑白皮赤芍藥木通升麻甘草各七分 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水煎食後服

175) 박정현, 1999 형상의학회 논문집, 소화기 질환으로 유발된 피부병의 형상의학적 치료, p. 31, 32

17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313 治心藏實熱口舌生瘡驚悸煩渴黃連黃芩麥門冬半夏地骨皮茯苓神赤芍藥木通生地黃甘草各五分 右剉作一貼薑五片水煎服



【考察】피부병에 수반증상을 잘 살피면 발생원인을 찾기가 쉽다. 위 환자는 피부병에 舌痛과 陰部痛을 수반하고 있다. 혀는 心臟의 竅<sup>178)</sup>이고 小腸의 熱로 莖中痛<sup>179)</sup>이 생기므로 心, 小腸의 熱로 온 피부병으로 보고 十味導赤散을 투여한 것이다.

① 白髮 <치험례>

조○○ 남자 46세 (1998년 11월 21일 세운한의원)

【形色】陽明

【脈】94 / 92

【症】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 피부병이 14년 됨, 10년 전부터 머리가 희어졌음.

【治療】何首烏散<sup>180)</sup>

【考察】이 환자는 10년 전부터 머리가 희어진 것은 精血이 고갈되어 온 것이므로 精血을 돋우어주어야만 피부가 치료된다. 何首烏는 精血을 도와서 髮白을 치료하므로 何首烏가 主藥으로 들어가는 何首烏散을 치료약으로 선택하였다.

(5) 발생원인

① 飲酒 <치험례>

김○○ 여자 30세 (2001년 10월 7일 홍제한의원)

【形色】氣科

【脈】84 / 84

【症】직장 회식으로 음주 자주 함. 얼굴이 가렵다. 음주 뒤는 더하다. 결혼 5년 되었으나 임신이 안 됨.

【治療 및 經過】對金飲子 加 葛根 半夏 茯苓 各 1돈

위 처방을 10일분 투여하고 내원하지 않아서 경과를 모르고 지냈는데 2002년 9월 출산한 후 산후 조리약을 지으러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지어 준 피부병 약을 먹고 피부병이 나고 임신도 하였다고 하면서 고마워함.

【考察】이 환자는 飲酒로 血熱을 조성하여 피부병도 왔지만 血을 손상시켜 자궁에도 영향을 주어 不妊까지 된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飲酒의 해독이 크다는 것을 임상으로 체험한 좋은 경우다.

② 湯火瘡 <치험례>

최○○ 여자 45세 (2002년 2월 18일 서봉한의원)

【形色】膽體, 鳥類

【症】2001년 12월 20일 남편과 부부싸움 중 불이 나 45% 화상. 번열감, 가렵고 피부가 덕지덕지 엉켜 붙음.

【治療 및 經過】紫雲膏, 十全大補湯

2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紫雲膏로 치료하니 피부상태가 조금 호전되고 煩熱感이 해소되었으나 병세가 크게 호전되지는 않음. 3월 29일 내원하여 脈은 97/97. 당기고 가려운 느낌이 있는데 야간에 더 심하고 기운이 없다. 十全大補湯을 다섯 제 투여. 7월 15일 내원하여 보니 피부가

새살이 돋고 많이 호전되어 지금도 계속 치료 중에 있음.

【考察】湯火瘡도 陰陽氣血이 부족하면 호전되지 않으므로 陰陽氣血을 돋구주는 十全大補湯이 만성질환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2) 形象醫學的 治療

(1) 男女老少

① 男子 精不足 <治驗例>

김○○ 男子 22세군인 (99년 10월 20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키가 작고 筋骨形

【脈】74 / 74, 54 / 58, 76 / 76

【症】全身의 皮膚가 가렵고 긁으면 혈고 진물이 난다. 밤이면 더욱 가렵다. 처음에 다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허리와 아랫배 이하로 더 심하다. 頭痛 眩暈 耳鳴 足掌熱 齒牙가 시리다. 얼굴도 화끈거린다. 大便 시원치 않음. 목에 가래가 끼고 헛기침을 한다.

【治療 및 經過】腎氣湯<sup>181)</sup>

上記의 환자는 1개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진찰을 하여 주로 丸劑로 처방을 하였는데 중간중간 여유가 있을 때에는 湯劑로 투여하기도 하였다. 6개월을 계속 복용하여 제반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皮膚도 확연하게 좋아졌다.<sup>182)</sup>

【考察】男子는 주로 精血 不足과 飲酒로 피부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 환자는 筋骨形이므로 筋骨의 燥한 것을 潤하게 하기 위해 精血을 돋구는 것이 기본이다. 가려움증이 다리에서부터 시작한 점이나 족장열감과 두통 현훈 이명도 眞陰이 고갈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에 가래가 끼는 것은 眞陰의 運行이 안 되어 생긴 것이므로 六味地黃丸에 腎氣를 運轉하는 五味子를 가미한 腎氣丸을 투여한 것이다.

② 男子 飲酒病 <치험례>

정○○ 男子 50세 (2002년 9월 11일 홍제한의원)

【形色】筋骨形

【脈】72 / 72

【症】얼굴에 때가 낀다. 음주를 자주 한다. 입안이 자주 헉다. 발을 내놓고 잔다. 盜汗이 있다.

【治療 및 經過】補中益氣湯 去白朮 加半夏 白芍 黃芩 黃柏 葛根 川芎 各1돈

2002년 9월 11일 상기처방을 1제 투여. 2002년 10월 14일 내원 얼굴의 때가 많이 없어지고 구내염 없다고 함. 다시 위의 처방1제 투여.

【考察】男子는 주로 精血 부족과 飲酒로 피부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 환자는 飲酒를 많이 하므로 酒毒이 陰虛를 유발하여 口內炎 足掌熱感 盜汗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③ 女子 胃腸病 <치험례>

윤○○ 여자 35歲 (1998년 8월 8일 세운한의원)

【形色】膀胱體

177) 조성태, 김종욱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 7

178)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600 內經曰, 心在竅爲舌, 又曰 心氣通於舌, 和則舌能知五味矣. 舌者, 心之苗也

179) 上揭書, p. 343 小腸有氣, 則小腹痛, 小腸有血, 則小便澀. 小腸有熱, 則莖中

180)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493 治遍身疥癬癢疥芥藤威靈仙蔓荊子蚬蚶草即菴藪何首烏防風甘草各等分右爲末每取二錢溫酒調下

18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83 六味地黃丸一劑加五味子四兩乃滋肺之源以生腎水也 ○水泛爲痰之聖藥血虛發熱之神劑又能補肝蓋腎肝之病同一治也

182)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6

【脈】 86 / 84

【症】 피부가 가렵다. 헛배가 부른다. 손발이 저리다. 월경부조.  
【治療 및 經過】 平胃散<sup>183)</sup>

1998년 8월 8일 평위산 1제 투여.

【考察】 女子는 胃腸病이나 痰火로 피부병이 많이 온다. 이 환자는 헛배가 부르고 팔다리가 저린 것으로 봐서 脾胃病으로 피부병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 月經不調도 脾胃病을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다.

④ 女子 痰火 <치험례>

정○○ 여자 31세 (2001년 8월 9일 홍제한의원의원)

【形色】 氣科

【脈】 86 / 84

【症】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다. 설사. 중완압통. 평소 잘 체한다. 담음형상

【治療 및 經過】 二陳湯加 蒼朮 白朮 川芎 山楂, 解毒丹

2001년 8월 9일 상기처방 10일분, 解毒丹 3일분 투여.

【考察】 이 처방은 痰飲이 있으면서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자들에게 통용하는 처방이다.

⑤ 女子 飲酒 <치험례>

권○○ 여자 37세 (2001년 7월 13일 홍제한의원의원)

【形色】 氣科. 面白. 마르고 키 크다.

【脈】 60 / 60

【症】 얼굴과 목이 모기가 문 듯하다. 눈이 가렵고 조잡, 탄산, 설사, 현훈 증상이 나타난다. 가끔 음주를 한다.

【治療 및 經過】 對金飲子<sup>184)</sup>加 葛根 半夏 茯苓 각1돈

2001년 7월 13일 對金飲子加味 20일분 투여. 2001년 9월 28일 내원, 피부병은 많이 호전하였으나 눈이 가려운 증상은 남아있다. 계속하여 對金飲子加味 20일분 투여. 11월 20일 내원, 피부병은 거의 치료되었음. 환자에게 음주를 금함.

【考察】 女子는 飲에 속하므로 鬱하기 쉬우므로 酒毒의 해가 남자보다 심하다. 酒毒<sup>185)</sup>은 胃腸病은 물론, 咳嗽, 失明, 皮膚病, 不妊까지 발생하므로 음주여부를 필히 問診하여야 한다.

⑥ 女子 血虛 <치험례>

정○○ 여자 16세 (2002년 3월 12일 홍제한의원의원)

【形色】 氣科. 머리가 크다

【脈】 84 / 84

【症】 전신 피부가 가렵고 밤에 더하다. 口渴은 없다.

【治療 및 經過】 四物湯 加 浮萍草 3돈 黃芩 1돈

2002년 3월 12일 四物湯加味方 투여. 2002년 4월 12일 내원, 피부병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약간 가렵다. 다시 10일

분 투여

【考察】 여자는 남자에 비해 精보다는 血이 부족해서 피부병이 발생하기 쉽다. 血病은 口渴이 없으므로 이것을 문진하여야 한다.

⑦ 소아 조산아 <치험례>

최○○ 남자 3세 (2000년 8월 23일 아카데미한의원의원)

【形色】 膀胱體

【症】 엄지발가락 허벅지 배 얼굴 부위에 가렵고 혈면서 진물이 나오고 부스럼이 생긴다. 便秘가 심하여 고생을 한다고 한다. 1개월 조산.

【治療 및 經過】 十全大補湯

상기환자에게 十全大補湯 10첩을 투여하여 피부병과 便秘가 개선되었다.<sup>186)</sup>

【考察】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早産兒는 土氣가 부족한 것이다. 土氣의 부족으로 精氣神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身形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十全大補湯을 투여하였다.

⑧ 소아 조산아 <치험례>

이○○ 27個月의 女子 (1998년 9월 5일 세운한의원의원)

【形色】 少陰形, 머리가 크다.

【脈】 緩脈

【症】 8개월 짜 태어나서 언어발달과 성장이 느림. 현재 전신 피부가 어둡고 거칠거칠하다. 감기를 자주 앓고 코막힘이 심하며 목이 아프다. 眼瞼下垂도 있다. 惡心과 식욕부진도 자주 나타난다.

【治療 및 經過】 補中益氣湯 加 羌活 防風 荊芥 각 1돈, 九味羌活湯, 補中益氣湯 加 麻黃 桂枝 乾薑 각 1돈

1998년 9월 5일 五軟症이 있어 우선 補中益氣湯 加 羌活 防風 荊芥 각 1돈을 15일분 투약하였음. 鼻塞症을 치료하기 위하여 九味羌活湯을 사이사이에 간복시켰다. 9월 18일 다시 내원하였을 때 鼻塞과 胎熱이 호전되었고 다시 15일분을 복용시켰다. 11월 5일 내원하였을 때는 얼굴의 皮膚가 맑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계절이 겨울로 변화하므로 補中益氣湯 加 麻黃 桂枝 乾薑 각 1돈을 15일분을 투약하였다. 1999년 1월 7일 胎熱이 많이 호전되어 피부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였다.

【考察】 상기환자는 조산하였으므로 土氣가 부족한 것이다. 이는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것으로 주변환경 즉 風·寒·暑·濕·燥·火에 적응하지 못하여 皮膚의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sup>187)</sup>

⑨ 小兒 燥證 <치험례>

이○○ 여자 6세 (2001년 7월 21일 홍제한의원의원)

【形】 血科

【症】 족관절의 皮膚가 가렵다. 잘 때 배를 내놓고 잔다. 밤에 더 가렵다. 갈증이 있다.

183)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340 治脾胃不和不思飲食心腹脹痛嘔噦惡心噁氣吞酸面黃肌瘦怠惰臥常多自利或發霍亂及五噎八痞腸氣反胃等證蒼朮二錢陳皮一錢四分厚朴一錢甘草六分右剉作一貼煎三片棗二枚水煎服或爲末取二錢煎湯點服(入門)○平胃散決烈耗散之劑實非補胃之藥能瀉土氣之效卓使之平耳用之而胃氣和平則便之不可常用也(丹心)

184)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38 治酒食傷和胃消痰陳皮三錢厚朴五錢甘草各七分右剉作一貼煎三片水煎服

185) 上揭, p. 1135

186)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8

187) 박정현, 1999 형상의학회 논문집, 소화기질환으로 유발된 피부병의 형상의학적 치료, p. 33

【治療 및 經過】四物湯 加 浮萍草 3돈 黃芩1돈, 四物湯 去川芎 加麥門冬 天門冬 天花粉 黃柏 知母 紅花酒洗 甘草 五味子 各 1돈

2001년 7월 21일 血熱로 보고 四物湯 加 浮萍草 3돈 黃芩 1돈 투여. 2002년 10월 6일 내원, 호전 안 되어 (燥門) 四物湯 去川芎 加麥門冬 天門冬 天花粉 黃柏 知母 紅花酒洗 甘草 五味子 各 1돈으로 바꾸어 투여. 2002년 5월 4일 환자의 아버지가 내원하여 딸의 皮膚病이 완치되고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는다고 고마워하였음.

【考察】소아 皮膚病은 선천적으로 精血不足으로, 후천적으로는 消化器 질환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다. 먼저 소화기 병으로 접근하되 효과가 없으면 선천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燥門의 四物湯加味方이나 瓊玉膏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⑩ 小兒 胃實證 <치험례>

강○○ 여자 8세 (2001년 9월 11일 홍제한의원)

【形色】陽明形, 귀가 크다. 입이 발달.

【症】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진다. 식욕이 아주 좋다. 배가 아프고 방기 냄새가 지독하다. 손발에 땀이 많다. 기침도 한다.

【治療 및 經過】瀉黃散<sup>188)</sup>

2001년 9월 11일 瀉黃散을 1제 투여. 10월 5일 내원하였는데 피부가 많이 개선되고 腹痛과 방귀냄새가 많이 호전되고 다시 1제 투여.

【考察】소아는 주로 五臟의 虛實을 보고 처방한다. 陽明形은 胃熱이 심해서 위장병과 皮膚病이 발생한다고 보고 투여한 것이다.

⑪ 小兒 食積類傷寒 <치험례>

김○○ 남자 5세 (2002년 4월 29일 홍제한의원)

【形色】입은 작고 귀가 크다.

【脈】96 / 96

【症】입술이 부풀었다. 피부가 약간 가렵다. 發熱, 腹痛, 嘔吐.

【治療 및 經過】陶氏平胃散

2002년 4월 29일 식상으로 보고 陶氏平胃散 10첩 투여하고 전화로 확인하니 제반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음

【考察】입술이 부풀은 것은 脾陰虛나 食傷熱로 본다. 증상과 합일시키면 식상이 원인이니 陶氏平胃散을 투여하였다. 食積類傷寒은 熱은 있으나 팔다리가 아프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2) 肥瘦人

① 上下論의 肥瘦人

<치험례>

양○○ 남자 28세 (1998년 4월 28일 홍제한의원)

【形色】肥人, 근시 안경

【脈】70 / 72

【症】사타구니가 가렵다. 얼굴 목도 가렵다. 가슴이 막힌 듯하다. 밥맛이 없고 소화 안 된다.

【治療 및 經過】八味丸

4월 28일 내원 八味丸 1개월분 투여. 7월 4일 내원 피부가 많이 개선. 다시 八味丸 2개월분 투여. 99년 그 동안 피부병이 없었으나 8월 19일 내원하여 이제는 목 주위에 피부가 가렵다고 함. 다시 八味丸 1개월분 투여.

【考察】이 환자는 腎陽이 虛하여 陰頭나 陽頭로 증상이 나타나므로 八味丸을 투여함.

② 氣血論의 肥瘦人

<치험례>

박○○ 남자 20세 (2000년 7월 11일 세운한의원)

【形色】瘦人, 身長, 蒼白하며, 潤氣가 없다.

【脈】54 / 54

【症】전신에 乾癬으로 皮膚가 乾燥한 상태이지만 심한 부위는 붉게 충혈이 되고 갈라진 상태로 여름철에 심하다. 특히 가슴부위에 심하다. 消化 狀態가 좋지 않다. 手足掌에 땀이 많다. 평소 추위에 예민하다.

【治療 및 經過】加味不換金正氣散<sup>189)</sup>, 陰降火湯

2000년 7월 11일 形象的으로 血虛하나 증상은 熱症狀과 濕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서 우선 加味不換金正氣散을 사용. 7월 26일과 10월 11일에 내원하였는데 붉고 갈라진 피부상태는 조금씩 好轉됨. 계속 같은 처방 투여. 10월 27일 내원, 濕과 熱의 症狀이 악화되고 形象的으로 血虛하므로 滋陰降火湯 투여.

【考察】滋陰降火湯은 氣血論의 瘦人에 쓴다.

③ 前後論의 肥瘦人

<치험례>

김○○ 女子 16歲 (2001년 6월 16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肥人. 面浮澤

【脈】124 / 132

【症】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것같이 皮膚色이 변해 병원 4군대를 다녀보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잘 滯한다. 滯하면 어지럽고 어떨 때는 熱이 오르면 속이 메스꺼린다. 감기증세가 늘 있고 콧물이 나오고 추위를 많이 탄다. 몸이 무겁고 잘 붓는다. 痰飲의 形象과 症狀.

【治療 및 經過】人蔘養胃湯<sup>190)</sup>

환자는 20첩을 복용하고 재진하니 脈이 80/76으로 현저히 좋아졌고 皮膚도 약간 호전, 여타 증상들은 거의 소실, 다시 같은 처방 투여. 세 번째 내원, 脈은 72/68로 皮膚의 검은 반점이 많이 벗겨져 만족해하는 눈치였으며 완전히 고치겠다고 하여 다시 같은 處方을 하였다.<sup>191)</sup>

【考察】前後論의 肥人은 濕을 적당히 유지하여야 하는데 脈이 정상을 벗어나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人蔘養胃湯을 투여한 것이다.

188) 對譯東醫寶鑑, p.319 一名瀉脾散治脾熱口瘡口臭口臭一錢半藿香甘草各一錢石膏末八分防風六分右剉作一貼蜜酒拌微炒水煎服

189)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 p.14

190)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017 治傷寒陰證及外傷風寒內傷生冷憎寒壯熱頭痛身疼蒼朮一錢半陳皮厚朴半夏製各一錢二分半茯苓藿香各一錢人蔘草果甘草炙各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烏梅一箇水煎服令微汗澀澀然自然解散若有餘熱以參蘇飲欸欸調之

191) 조성태, 김중옥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11

<치험례>

강○○ 女子 70歲 (1998年 5월 16일 세운한의원)

【形色】瘦人, 코가 발달

【脈】72 / 72

【症】피부가 붉고 수장에 백반이 있음. 30년 전 便秘로 대장 수술, 치질수술 2회. 지금도 便秘가 심함.

【治療 및 經過】大造丸<sup>192)</sup>

1988년 5월 16일 大造丸 15일분 투여. 1988년 5월 30일 내원, 약간 便秘가 해소되었음. 다시 大造丸 1개월분 투여. 6월 27일 내원, 피부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음. 8월 16일 내원, 피부 증상은 호전, 便秘는 여전, 大造丸, 疏風順氣丸, 각각 1개월분 투여.

【考察】이 환자는 瘦人이나 精血不足으로 便秘와 피부질환이 나타났으므로 大造丸을 투여.

④ 表裏論的 肥瘦人

<치험례>

정○○ 여자 27세 미혼 (2000년 11월26일 세운한의원)

【形色】肥人, 陰盛陽虛, 白

【脈】滑, 數, 脾 / 胞

【症】皮膚에 瘡이 있고 凝結. 색이 검어짐. 몸통과 四肢 모든 부위에 나타남. 밤에 더 가렵고 여름에 심함. 生理 때 가 되면 頭痛이 있음.

【治療 및 經過】四順清涼飲, 葛根湯<sup>193)</sup>

2000년 11월26일 피부상태가 凝結되고 生理때 頭痛에 착안하여 血熱로 보고 四順清涼飲을 사용. 12월 16일 감기. 기침, 發熱, 咽喉痛, 脈이 좌측이 크므로 葛根湯 5일분을 투여 그 뒤 앞의 처방을 반복하여 투여함. 皮膚症 상태는 호전됨.

【考察】陰盛陽虛는 手足이 짧다. 이는 구심력이 강해서 잘 凝集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부의 熱이 발생하기 쉽다.

<치험례>

형○○ 남자 13세 (2002년 10월10일 흥제한의원)

【形色】陽盛陰虛, 面白

【脈】84 / 84

【症】피부가 가렵고 코가 막힌다. 환절기 심하다. 늘면 땀이 좀 나는 편이다.

【治療 및 經過】補中益氣湯加 羌活 防風 荊芥 각1돈

2002년 10월10일 상기 處方을 10일분 투여. 10월 24일 내원, 피부가 약간 덜 가렵고 코막힘도 약간 호전 됨.

【考察】陽盛陰虛는 手足이 길다. 이는 원심력이 강해서 잘 흩어져서 中氣가 부족하기 쉽다.

(3) 精氣神血科

① 氣科 <치험례>

장○○ 女子 40歲 (2001年 4월 4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氣科, 骨大

【脈】80 / 80

【症】화나면 가슴과 등이 아프면서 여드름 같은 것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조잡증, 泄瀉를 자주 한다. 식후 곧 大便을 보는데 시원치 않다. 痔疾, 大便에 出血이 있다.

【治療 및 經過】加味香蘇散(氣痔)<sup>194)</sup>

이 환자에게 氣鬱을 풀어주면서 痔疾을 治療하는 加味香蘇散을 투여하였는데 大便을 볼 때마다 出血되는 것이 사라지고 가슴과 등으로 여드름 같은 것이 생기던 것이 없어졌다.<sup>195)</sup>

【考察】氣科의 病理는 氣의 鬱滯<sup>196)</sup><sup>197)</sup>이다. 화가 나면 가슴과 등으로 여드름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氣鬱을 의미한다. 이 환자가 氣科이므로 痔疾도 氣鬱로 인해진 것으로 본다.

② 氣科 <치험례>

정○○ 여자 26세 (세운한의원)

【形】氣科

【脈】80 / 72

【症】피부가 벌레가 물은 모양으로 가렵고 진물 남. 3세 때 귀 뒤부터 부스럼 같이 시작하였다. 어려서 설사를 많이 한다. 經塊.

【治療 및 經過】十六味流氣飲

99년 1. 15부터 5월14일까지 8회에 걸쳐 매 1제씩 투여 조금씩 호전되어 지금은 거의 완치상태임. 99년 3월 6일 脈 98/106 약간의 발열증상으로 加味不環金正氣散을 투여하였다.

【考察】十六味流氣飲은 無名惡瘡에 쓰는 약으로 특히 氣虛하면서도 鬱하여서 온 癰疽나 瘡癤에 적합하다.

③ 神科 <치험례>

이○○ 남자 26歲 (1996年 1월 31일 세운한의원)

【形色】神科, 瘦人이며 臍體이다. 원래는 面白하나 現在는 紅赤하다.

【脈】滑脈, 100 / 102

【症】얼굴과 목에서 누런 진물이 나고 눈 주위가 가장 심하고 四肢는 輕하다. 七年前에 1-2個月간 嘔吐와 消化不良 뒤 얼굴과 목, 四肢관절이 가렵다가 점차 심해져서 皮膚가 갈라지고 진물이 생겼음. 오래 전부터 消化가 안되고 惡心과 乾嘔症, 上熱感과 自汗이 있음.

【治療 및 經過】消風散, 香砂平胃散, 茯苓半夏湯

1996年 1월 31日 來院. 消風散을 10餘劑 投與하여 好轉. 그 後에 香砂平胃散 2劑와 茯苓半夏湯 1劑를 投藥하여 完治되었다.

【考察】神科는 火에 속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內鬱되었다가 外感飲食 등의 자극으로 병이 나타난다.

192)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1173 脈虛微 血氣衰弱 此方滋陰補陽 養壽之聖藥也

193) 박정현,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 p. 16

194)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835 治氣痔陳皮枳殼川芎槐花各一錢紫蘇莖檳榔木香桃仁香附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薑三片棗二枚同煎服

195) 조성태, 김종욱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II, p. 2

19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p. 51

19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p. 281

上記患者 面遊風<sup>198)</sup>으로 판별되어 消風散을 투여한 뒤 皮膚의 이상이 많이 소실되었음. 이 病의 초기단계에 있던 內傷症狀이 나타남에 따라 香砂平胃散을 2劑 투여하였고, 마지막으로 乾嘔逆을 치료하기 위하여 茯苓半夏湯을 투여하였다.<sup>199)</sup>

(4) 臟腑形象

① 肝 <치험례>

오○○ 여자32세 (2001년 2월 3일 홍제한의원)

【形色】瘦人, 耳目口鼻大, 面靑

【脈】72 / 72

【症】피부가 가렵고 당긴다. 피곤하면 더 가렵다. 머리에 두둑이 난다. 눈이 잘 충혈된다. 두통, 불면, 비색이 있다.

【治療 및 經過】洗肝明目湯

2001년 2월 3일 간의 風熱로 보고 洗肝明目湯 10일분 투여. 2001년 2월 15일 내원, 피부 가려운 것과 눈 충혈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피곤하면 가렵고 눈도 충혈. 洗肝明目湯 20일분 투여. 2001년 4월 27일 내원 피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두통이 남아 있음. 百會 上星 前頂 額會에 뜸을 시술.

【考察】눈이 충혈되는 것은 주로 肝風熱이나 腎水不足으로 나타난다. 색과 증상을 종합하면 肝風熱로 온 것이므로 洗肝明目湯 투여. 두통, 鼻塞, 가려움도 肝風熱이다.

② 心 <치험례 >

전○○ 男子 5歲 (2001년 7월 26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地圖舌

【症】다리 쪽으로 胎熱이 심하다. 皮膚가 거칠다.

【治療 및 經過】十味導赤散

心臟의 實熱로 인해 皮膚에 이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十味導赤散을 투여하여 치료하였다.<sup>200)</sup>

【考察】혓은 心臟의 싹이므로 地圖舌이 있다는 것은 心臟에 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피부병도 열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心臟熱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③ 心 <치험례>

김○○ 男子 34歲 (1998년 9월 12일 세운한의원)

【形色】주름, 입 위주, 잘 웃는다.

【脈】72 / 76

【症】피부가 가렵다. 배꼽 위에 動悸.

【治療 및 經過】瀉心湯

9월 12일 瀉心湯 10일 분 投與.

【考察】이 환자는 눈가 주름이 있으면서 잘 웃으므로 심화가 성하여 피부병이 온 것으로 보아 心火를 치료하는 瀉

心湯을 투여.

④ 脾 <치험례11>

이○○ 여자 40세 (2000년 10월 아카데미한의원)

【形色】氣弱, 口大, 黃色

【脈】88 / 88, 62 / 62, 68 / 68

【症】98년부터 입술이 갈라지고 붓고 조이며 껍질이 벗겨지며 간혹 피가 난다. 2000년 1월 右側 顔面麻痺로 윗입술이 올라가지 않고 웃을 때는 우는 사람처럼 된다. 새벽이나 공복이면 속이 쓰리고 口臭가 심하다. 手足掌에 熱이 있고, 손목과 발목 위로 10cm까지 시리다. 귀에서 바람소리 냉장고 소리가 난다. 감기를 달고 산다.

【治療 및 經過】芍藥湯

입술이 트는 것은 脾熱이 盛한 것으로 보고 芍藥湯<sup>201)</sup>을 투여하였다. 3劑를 연속하여 복용하고 입술은 완전히 좋아졌으며 입 냄새도 없어졌다. 顔面의 麻痺症勢도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202)</sup>

【考察】이 환자는 입이 크고 面黃하니 脾胃病이 오기 쉽다. 입술이 트는 것, 배가 쉽게 고프고, 새벽에 속이 쓰리는 것도 脾熱이 盛한 것이다.

⑤ 腎 <치험례>

박○○ 남자 6세 (1999년 1월 22일 아카데미한의원)

【形色】面黑하고 臍體로 생겼다.

【症】皮膚가 거칠다 입술이 말라있다. 입 냄새가 있다. 잘 안 먹는다. 便秘.

【治療 및 經過】六味地黃湯 加 知母 黃柏 各一錢

소아 皮膚病도 五臟六腑가 나빠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 面黑하니 腎水가 부족된다. 따라서 六味地黃湯을 투여하되, 便秘가 있으므로 滋陰시키기 위해서 知母 黃柏을 加했다.<sup>203)</sup>

⑥ 小腸 <치험례>

구○○ 여자 9세 (2000년 11월 10일 세운한의원)

【形色】精科, 上脣이 들렸다. 面白.

【脈】微滑, 小腸에 걸려 臍에 떨어짐.

【症】가려움증이 특히 밤에 심하고, 건조하며 진물이 나지는 않는다. 평소 폭식하고. 口臭 口內炎 鼻塞症이 있다. 양약을 복용하고 난 이후 작년 부터 살이 찌기 시작함. 쉽게 추워하고 쉽게 더워한다. 또한 冷이 있다

【治療 및 經過】赤茯苓湯, 加減甘露飲

上脣이 들리고 구내염이 자주 있어 赤茯苓湯 투여. 갑자기 살이 찌는 것과 冷이 있는 것을 보고 二陳湯加減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함. 12월 1일 다시 내원함. 가려움증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口臭와 冷은 아직 있어 같은 처방을 투여. 12월 26일 재진. 가려움증은 많이 좋아짐. 口內炎은 줄어들고 冷은 아직 있지만 많이 호전됨. 加減

198) 御醫醫宗金鑑, 周麟德 譯, 서울, 新生福社社會開發, 1977, p.140 面遊風 面遊風燥熱濕成, 面目浮腫, 癢蟲行膚, 起白屑而癢極破津, 黃水津血疼 (註)此證生於面上, 初發面目浮腫, 癢若蟲行肌膚, 乾燥時起白屑, 次後極癢抓破, 熱濕盛者津黃水, 風燥盛者津血痛, 楚難堪由, 平素血燥過食辛辣厚味, 以致陽明胃經, 濕熱受風而成癢, 甚者宜服消風散, 痛甚者宜服黃連消毒飲, 外扶摩風膏緩緩取效.

199) 박정현, 1999 형상의학회 논문집, 소화기질환으로 유발된 피부병의 형상의학적 치료, p. 27

200) 조성태, 김중욱 2002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Ⅱ, p. 7

20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450 治痢泄澀而便膿血令行血則便膿自愈調氣則後重自除此藥是也白芍藥二錢黃連條各當歸尾各一錢大黃七分木香檳榔桂心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水煎服

202)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10

203) 조성태, 2001 형상의학회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6

甘露飲을 투여.

【考察】 이 환자는 上脣이 들렸으므로 小腸熱로 보고, 赤茯苓湯을 투여하였으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증상을 보면 위장질환을 추정할 수 있다. 좀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음식양생을 주시시켜야 할 경우다.

(5) 六經形

① 陽明形 <치험례>

김○○ 남자 32세 (1997년 5월 2일 세운한의원)

【形】 陽明形

【脈】 92 / 96

【症】 1990년 3월 군복무중 머리 속에 피부병 발생하여 이마에 乾癬. 현재 赤白屑이 혼재하여 도장 모양으로 전신으로 번짐.

【治療 및 經過】 升麻葛根湯加 牛蒡子 荊芥 防風, 白虎湯, 延年益壽不老丹

5월 2일 升麻葛根湯 20일분 투여. 98년 2월 7일 내원 전 반적인 증세 약간 호전, 口渴이 있음, 白虎湯 20일분 투여. 1995년 9월 결혼 후 부부관계를 못한다고 하여 延年益壽不老丹 1개월분 투여. 98년 4월 3일 내원 피부병 약간 개선, 白虎湯 20일 분 투여.

【考察】 이 환자는 陽明이므로 升麻葛根湯 투여 중 口渴이 심하므로 陽明胃熱을 치료하는 石膏가 주재인 白虎湯으로 전환하여 투여. 또한 陽明形은 胃熱로 인하여 土克水하므로 腎精이 부족한 증상이 수반되므로 延年益壽不老丹을 투여한 것이다.

② 太陽形 <치험례>

고○○ 남자 11세 (2000년 12월 4일 세운한의원)

【形色】 太陽形, 입이 발달, 面黃.

【脈】 微滑. 肝 / 心

【症】 皮膚가 어둡고, 乾燥하며 밤에 더 가렵고 겨울철에 심함. 渴症이 있고, 口臭가 있으며, 간혹 衄血이 있음.

【治療 및 經過】 滋陰降火湯, 升麻葛根湯, 白虎湯, 延年益壽不老丹

2000년 12월 4일 처방은 滋陰降火湯을 투여. 1월 2일 재진. 皮膚 瘙癢感 好戰됨. 특히 下肢 部位가 많이 호전됨. 같은 처방을 다시 투여. 1월 26일 재진. 皮膚의 건조감과 瘙癢感이 많이 호전됨.

【考察】 太陽은 多血少氣하지만 나이로 볼 때 血이 盛해지는 시기에 속한다. 따라서 “血虛 卽 陰虛”란 전제하에 四物湯加減方이나 滋陰降火湯類를 응용<sup>204)</sup>한 것이다.

③ 少陽形 <치험례>

조○○ 여자 14세 (2000년 9월 17일 세운한의원)

【形色】 少陽形, 赤白

【脈】 弦, 肝 / 心

【症】 四肢의 陰經絡 보다는 陽經絡 部位가 가렵고 겨울철에 심해지는 경향. 평소 腹痛과 便秘, 眩暈, 衄血이 있음.

【治療 및 經過】 清火補陰湯<sup>205)</sup>, 荊防敗毒散

2000년 9월 17일 皮膚症狀이 주로 陽經絡部位에 나타나고, 便秘를 보고 清火補陰湯을 투여. 9월 30일 재진하니 發熱, 身痛이 있어서 荊防敗毒散을 3일간 투여. 10월 28일 재진. 그 동안 皮膚症狀이 소실되어 약을 중단하다가 다시 내원. 앞의 약을 다시 투여함. 12월17일 재진. 皮膚 가려움증은 거의 소실됨.

【考察】 少陽形은 鬱火나 少陽火, 陰虛로 병이 온다. 이 경우는 補陰을 시키는 중에 감기 증상의 熱을 해소하면서 체내의 陰血의 손상을 방지하여 피부병을 치료한 경우이다.

④ 太陰形 <치험례>

한○○ 여자 70세 (1999년 2월 27일 세운한의원)

【形色】 太陰形, 陽明形, 膀胱體

【脈】 66 / 64

【症】 40세 때부터 팔꿈치 이하로 검버섯이 많다. 消化가 잘 안 된다. 갈비뼈까지 빠근하다. 頭痛과 耳鳴이 6~7년 됨.

【治療 및 經過】 藿香正氣散 加 山楂 神曲 檳榔 枳實 貢砂 仁 葛根 便香附子 羌活 各一錢<sup>206)</sup>

【考察】 검버섯은 皮膚呼吸이 잘 안 된다는 것이며 風寒濕燥火에 이기지 못해서 風化作用을 일으키는 것이다.<sup>207)</sup> 따라서 太陰形의 基本藥인 藿香正氣散 加味方을 활용한 것이다.

⑤ 少陰形 <치험례>

구○○ 여자 37세 (1999년 4월 30일 세운한의원)

【形色】 少陰形, 觀骨大, 剛

【脈】 76 / 76

【症】 10년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도가 변하면 皮膚가 붉게 되고 온 몸에 돌아난다. 아이를 낳고 파마를 한 후 뒷목이 간질간질하더니 해마다 봄만 되면 꼭 나온다. 감기 기운 자주 있다.

【治療】 升麻葛根湯 加牛蒡子 荊芥 防風 各一錢

【考察】 少陰形으로 類形이 있다는 것은 癩疾化되서 사계절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마다 봄만 되면 더욱 심해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므로 溫毒으로 본 것이다. 溫毒으로 인해 皮膚가 안 좋을 때 類形이 있으면 升麻葛根湯을 응용할 수 있다.<sup>208)</sup>

⑥ 少陰形 <치험례>

강○○ 여자 30세 기혼 (2002 12월 8일 세운한의원)

【形色】 少陰形, 面白

【脈】 沈細, 肝 / 心

【症】 四肢 屈曲部位와 목의 皮膚가 乾燥하고, 손바닥은 濕疹. 皮膚症狀은 겨울철에 심해진다. 心下痞, 便秘, 痔疾, 口乾症 등이 있다. 下腹部 疝症이 있음. 평소 추위를 잘 탄다.

204)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적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 p. 12

205)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적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 p. 14

206) 申載籟, 方藥合編解說, p. 108.

20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1, p. 86

208) 조성태, 2001 형상의학적 논문집, 피부질환의 형상의학적 치험사례, p. 14

【治療 및 經過】 209) 蟠葱散<sup>210)</sup>, 補中益氣湯季節方

下腹部가 차가운 것과 面白을 보고 蟠葱散을 투여함. 12월 23일 재진. 內傷症狀과 皮膚症狀이 많이 好戰됨. 處方은 반복함. 1월 19일 재진. 가려움증 好戰됨. 手足 얼굴부위 등 차가운 기운에 노출된 부위만 조금 남았음. 補中益氣湯季節方을 투여함.

【考察】 이 환자는 피부병 이전에 少陰形이므로 찬 기운으로 병이 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즉 그 形에 그 병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이다.

총괄 및 고찰

인체는 精血을 포괄하는 津液의 集體로 氣의 소통이 원활하여야 한다. 그래서 氣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 것이다. 皮膚는 氣의 소통이 원활하면 병이 안 오나 너무 닫히거나 열리면 병이 온다. 인체는 안으로 五臟과 六腑가 있으며 겉으로는 皮膚가 있는데 經絡이 상호 연결되어 內外의 氣血을 소통하여 조절한다. 그러므로 皮膚는 인체 모든 臟腑가 모두 관여된다. 그러나 인체의 내부 변화에 항상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飲食物이다. 그러므로 피부병은 주로 脾胃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脾胃는 좁은 의미로는 消化器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인체 전체이므로 皮膚까지 확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 소화기의 이상은 피부로 전달되어 반응한다. 그러므로 피부를 열고 닫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피부병을 치료하고, 내부의 소화기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부병은 넓은 의미의 脾胃病과 좁은 의미의 脾胃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統體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므로 皮膚病도 넓은 의미의 脾胃病으로 우선 볼 필요가 있다. 이때 통치방은 升麻葛根湯인데 이는 피부의 자동조절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니 피부병뿐만 아니라 飲酒病, 溫毒, 痘瘡 등에 널리 활용한다. 처방의 구성을 보면 白芍으로 脾陰을 補하고 葛根 升麻로 胃의 虛熱을 배출하여 氣의 升降出入을 도우며 甘草로서 조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陰陽氣血虛에는 十全大補湯을 쓰고, 氣虛하면 補中益氣湯·益胃升陽湯·調中益氣湯을 쓰고, 血虛에는 四物湯 加味, 裏虛에는 小建中湯·黃芪健中湯을 쓰며, 實證이면 防風通聖散·黃連解毒湯을 쓴다.

피부병에 대한 형상의학적 치험례를 세운한의원, 아카데미 한의원, 흥제한의원, 서봉한의원에서 실제 임상한 실례를 일반 분류(증상특징, 발생부위, 발병원인, 발병시기, 수반증상)와 형상의학적 분류(男女老少, 肥瘦人, 精氣神血科, 臟腑形象, 六經形)로 나누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략, 본문 참조)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서 요약하면 첫째, 병증특징에서 피부병은 주로 內傷發斑, 癩疹, 疥癬에서 많이 온다. 內傷發斑에서 중도약으로 升麻葛根湯을 쓰고, 허중에 十全大補湯·益胃升陽湯·

調中益氣湯·黃芪健中湯을 쓰고, 痰熱에는 二陳湯加味를 쓰고, 食傷實證에는 平胃散·陶氏平胃散을 쓴다. 癩疹도 중도약인 升麻葛根湯을 주로 쓰며, 防風通聖散·烏藥順氣散·清肌散도 쓴다. 疥癬은 血分の 鬱熱이므로 통치방으로 升麻葛根湯과 四物湯加浮萍草 黃芩을 쓰고, 血熱에는 平血飲을, 濕에는 加味不環金正氣散, 虛證이면 十全大補湯을 쓴다. 둘째, 발생부위에서 얼굴과 수족이 피부병은 주로 脾胃病, 生殖器病에서 많이 온다. 셋째, 수반증상도 胃腸病과 子宮病이 많이 연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피부병을 볼 때 비위의 문제를 먼저보고 다음 자궁의 이상을, 다음은 上焦의 熱을 보아야한다. 즉 中焦 下焦 上焦의 순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발생시기에 있어서 알아보면, 인체는 계절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데 중도약으로는 升麻葛根湯을 쓰고, 虛證이면 주로 十全大補湯·補中益氣湯을 쓴다. 晝夜에 피부병의 증세가 차이 나면 四物湯이나 小柴胡湯을 활용한다. 다섯째,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飲酒가 직접 원인인 경우가 임상에 흔하다. 특히 女子는 陰에 속하여 울체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酒毒이 내부에 정체되어 피부병뿐만 아니라 頭痛 眼痛 咳嗽 不妊도 야기하므로 문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湯火瘡도 피부호흡을 하도록 자침을 하고 體力虛弱이나 상처부위가 넓은 경우는 陰陽氣血을 補하는 약물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형상의학적 분류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男女老少에서 보면 男子는 腎虛·飲酒로, 女子는 血虛·飲酒·食積·痰火로 오는 경향이 많다. 小兒 피부병은 선천적으로는 稟賦虛弱이나 臟腑虛實로 많이 오고, 후천적으로는 食積으로 많이 온다. 허약하면 十全大補湯·補中益氣湯·益胃升陽湯·黃芪健中湯·六味地黃湯·四物湯·八物湯을 활용하고, 胃熱이면 瀉黃散을 쓰고, 食傷이면 陶氏平胃散을 쓴다. 老人은 虛勞와 老化的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둘째, 肥瘦人은 인체의 구성과 운행을 통체적으로 본 것인데, 上下左右前後表裏로 구분한다. 上下는 陰陽으로 본 것으로 陽虛에는 八味丸을 투여한다. 左右는 氣血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瘦人에는 滋陰降火湯을 쓴다. 前後는 燥濕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肥人은 濕을 조절하기 위하여 人參養胃湯을 투여하고, 瘦人은 大造丸이나 腎氣丸 등으로 精血을 도와준다. 表裏는 寒熱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手足의 長短으로 판단한다. 陰盛陽虛는 手足이 짧아 구심력이 강해서 잘 응집함으로 내부의 熱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四順清涼飲 등을 활용한다. 陽盛陰虛는 手足이 길어 원심력이 강해서 잘 흩어지므로 中氣不足이 오니 補中益氣湯을 활용한다. 셋째, 精氣神血科에서는 精血과 神氣의 조화가 관건이다. 精血科는 精血을 바탕으로 氣가 운행되어야 함으로 六味地黃丸·四物湯을 기본으로 쓴다. 神氣科는 氣의 운행을 바탕으로 精血을 잘 간직하여야 함으로 氣의 鬱滯나 痰火를 풀기 위하여 香蘇散·二陳湯 등을 활용한다. 넷째, 臟腑의 形象에서는 五臟의 虛實을 보고 피부병을 치료할 때는 耳目口鼻의 大小와 색깔·七情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肝風熱에는 洗肝明目湯을, 心熱에는 十味導赤散·瀉心湯을, 脾熱에는 芍藥湯을, 腎虛에는 六味地黃丸을, 小腸熱에는 赤茯苓湯을 쓴다. 다섯째, 六經形에 있어서는 그 類形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類形이 있다는 것은 六氣 변화의 적응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도약으로 升麻葛根湯을 쓴다. 六經

209) 양성완 박정현, 2001 형상의학적 논문집,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考察, p. 13

210)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 808 治脾胃虛冷心腹攻刺連胸脇膀胱小腸腎氣作痛杏朮甘草各一錢三稜蓬朮白茯苓青皮各七分縮砂丁香皮檳榔各五分 玄胡索肉桂乾薑各三分石末作一貼葱白一莖煎服

形 중에서 특히 陽明形이 피부병이 많다. 陽明形은 熱 배출이 잘 안 되며 胃가 실하여서 過食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니 치료는 주로 胃熱과 食積을 치료하되 반드시 음식양생을 시켜야 한다. 胃熱을 치료하는 石膏가 들어 있는 白虎湯 · 人蔘白虎湯 · 化痰清火湯을 많이 활용하고, 胃熱로 인하여 精血不足을 수반하기 쉬우니 이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太陽形은 본이 寒이니 차가워서 병이 오기 쉽고, 기혈론적으로는 多氣少血하지만 나이와 병증을 고려하여 기혈의 양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血虛하면 四物湯 加減方 이나 滋陰降火湯類를 응용한다. 少陽形은 鬱火 · 少陽火 · 陰虛로 병이 오니 火를 풀거나 補陰을 시켜야 한다. 太陰形은 濕土로 병이 오기 쉬운데 기본약은 藿香正氣散을 활용한다. 少陰形은 寒證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병증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 결 론

皮膚疾患을 일반분류와 形象醫學的인 분류를 통하여 診斷治療한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皮膚는 經絡의 집으로 氣의 出入處, 調節處, 診斷處이다. 皮膚는 組織으로는 肺大腸이 주관하고 運行에서는 脾胃가 주관한다. 피부병은 氣血의 不調和로 발생하는데, 주로 血熱로 발생하며 痰, 風, 濕, 燥도 火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병의 일반적 치료는 症狀特徵, 發生部位, 發生原因, 發生時期, 隨伴症狀로 구분하여 치료할 수 있다. 피부병의 形象醫學的 치료는 男女老少, 肥瘦人, 精氣神血科, 臟腑形象, 六經形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치료와 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男女老少에서는 男子는 주로 飲酒와 精不足, 女子는 飲酒, 食傷, 痰火로 발생하는데 특히 飲酒로 인한 피부병이 많다.

小兒는 先天虛弱으로 발생하지만 특히 食積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음식 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老人은 虛勞로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원인에 따라 치료한다. 둘째, 肥瘦人에서는 上下論으로는 陽虛 · 陰虛 · 實熱, 左右論으로는 氣血의 不調和, 前後論으로는 燥와 濕으로, 表裏論으로는 中氣不足과 鬱熱로 피부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上下左右前後表裏에 따라 치료한다. 셋째, 精氣神血科에서는 精血과 神氣의 조화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精科는 精不足 또는 濕痰의 鬱滯로, 氣科는 氣의 鬱滯 또는 氣虛로, 神科는 七情鬱結과 陰虛內熱로, 血科는 血虛發熱이나 氣虛로 皮膚病이 온다. 포괄적으로는 精血科는 精血을 바탕으로 氣가 운행되어야 함으로 六味地黃湯과 四物湯을 기본으로 한다. 神氣科는 氣의 運行을 바탕으로 精血을 간직하여야 함으로 氣鬱이나 痰火를 풀어주는 香蘇散, 二陳湯 등을 기본으로 한다. 넷째, 臟腑 形象을 보고 치료할 때는 耳目口鼻의 大小, 색깔, 性情을 조합하여 진단과 치료를 한다. 다섯째, 六經形은 氣血의 多少에 따른 類形을 말하는데 氣血이나 風寒暑濕燥火의 편중으로 皮膚疾患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陽明形은 多氣多血하고 胃熱이 많으므로 피부병이 많은데 胃熱을 치료하는 것이 기본이며, 반드시 飲食養生을 주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동의보감국역위원회, 上揭書, 서울, 법민문화사, 1999.
2. 대한전통한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I ~ VII, 서울, 지산출판사.
3. 형상의학회, 형상의학회지, 1999.
4. 형상의학회, 형상의학회지, 2000.
5. 형상의학회, 형상의학회지, 2001.
6. 형상의학회, 형상의학회지, 2002.
7.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8. 御纂醫宗金鑑, 周麟德 譯, 서울, 新生福祉社會開發, 1977.